

2017학년도 6월 고3 그믐달 모의고사 정답 및 해설

• 국어 영역 •

국어 정답

1	③	2	⑤	3	④	4	④	5	④
6	②	7	②	8	③	9	③	10	②
11	⑤	12	①	13	⑤	14	④	15	④
16	①	17	⑤	18	⑤	19	⑤	20	②
21	②	22	⑤	23	⑤	24	④	25	④
26	③	27	③	28	②	29	④	30	②
31	④	32	②	33	④	34	④	35	⑤
36	③	37	②	38	④	39	⑤	40	③
41	②	42	④	43	②	44	①	45	③

해설

1. [정답선택지해설]

③ [근거] 1문단 전체 + 마지막 문단 전체

「연결논리」 근거에 따르면, 발표자는 발표 내용과 관련이 있는 최근 영화의 한 장면을 시각 자료로 청중에게 제시하여, 청중이 학교 축제 행사 발표회에서 사용할 의상을 제작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으므로, 선지의 진술이 적절하다.

[오답선택지해설]

- ① [연결논리] 발표의 시작 부분(1문단)에 시각 자료를 제시하지 않았다.
 ② [연결논리] 발표의 시대적 배경(르네상스 시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제시된 주제와 관련된 역사적인 사건에 대한 시각 자료는 확인할 수 없다.
 ④ [연결논리] 발표를 위해 참고한 서적들에 대해서는 언급되어 있지 않다.
 ⑤ [연결논리] 청중이 발표 내용을 활용하는 데 도움을 주는 구체적인 활용방안(여기서는 르네상스 시대의 의상을 만드는 구체적 방법 정도가 되겠다.)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알려주고 있지 않다.

2. [정답선택지해설]

⑤ [근거] 3문단 11~16행 - (화면을 보여주며) 한편, 이 사진의 여성은 <엘리자베스 1세>입니다. 엘리자베스 여왕은 3천여 벌의 드레스와 80개의 가발을 소유했다고 알려져 있는 인물입니다. 이 그림에서 가는 허리를 강조한 코르셋과, 스커트를 풍만하게 키우는 지지대를 넣어 구축한 과시적인 실루엣의 드레스는 웅장함의 극치를 보여줍니다.

「연결논리」 근거에 따르면, <엘리자베스 1세>에 등장하는 엘리자베스 여왕이 코르셋을 착용한 것은 맞으나, 스커트를 풍만하게 키우는 지지대가 들어간 드레스도 착용하여 웅장한 모습을 드러낸다고 하였으므로, <엘리자베스 1세>에서 전체적으로 연약하고 가냘픈 여성의 몸을 강조했다고 보기 어렵다.

[오답선택지해설]

- ① [근거] 2문단 1~6행 - 르네상스 시대는 미켈란젤로와 레오나르도 다 빈치가 인간의 아름다움을 예술로 승화시키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시기에는 중세시대 신(神) 중심의 사고가 인간 중심의 인본주의로 전환되고 있었는데, 가장 아름다운 예술품이 인간의 몸 자체라는 인식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인간의 몸을 감싸는 의상이 예술의 주된 주제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② [근거] 2문단 6~10행 - (화면을 전환하며) 다음 사진의 남성은 영국의 국왕이었던 <헨리 8세>입니다.

다. 르네상스 남성복의 전형을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는 헨리 8세는 이 그림에서 큰 소매가 달린 과장된 실루엣의 재킷을 입고 있습니다.

③ [근거] 3문단 1~6행 - (화면을 보여주며) 이 그림의 주인공은 <캐서린 드 메디치>입니다. 캐서린은 당시의 이상적인 허리 치수인 13인치를 유지하기 위해 철제 코르셋을 도입했고, 이를 계기로 철제 코르셋이 빠른 속도로 상류 사회에 퍼졌습니다. 또한 이 그림에서 그녀는 가면을 쓰고 있는데, 가면 또한 캐서린 덕분에 외출 시 신분의 노출을 꺼리는 귀족들의 중요 아이템이 되었습니다.

④ [근거] 3문단 6~11행 - (화면을 전환하며) 다음 사진의 남성은 영국의 국왕이었던 <헨리 8세>입니다. 르네상스 남성복의 전형을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는 헨리 8세는 이 그림에서 큰 소매가 달린 과장된 실루엣의 재킷을 입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조적으로 바지는 다리 근육이 그대로 드러나는 아주 얇은 스타킹을 신고 있습니다.

3. [정답선택지해설]

④ [근거] 9~18행 - 찬성1 : 학생들의 수준별로 학급을 따로 편성하여 수업하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한 학년에는 다양한 수준의 학생들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학생들의 수준에 무관하게 편성된 학급에서는 어쩔 수 없이 수업 수준을 중위권 학생들에게 맞추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일부의 중위권 학생에게만 이익이 될 뿐입니다. 상대적으로 학습의 다수를 차지하는 상위 또는 하위 수준을 가진 학생들은 손해를 보게 됩니다. 하지만 수준별로 구성된 학급에서는 각 수준에 맞는 수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됨으로써, 모든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가 높아지는 것은 물론 수업의 몰입도도 향상됩니다.

「연결논리」 근거에 따르면, 찬성1은 수준별 학급 편성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일부 중위권 학생들을 제외한 다수의 학생들이 자신들의 수준에 맞지 않은 수업을 들어 손해를 보고 있다는 부정적인 측면을 제시하며, 현재 방식(수준별 학급 편성)을 옹호하고 있으므로, 선지의 진술이 적절하다.

[오답선택지해설]

① [근거] 30~38행 - 반대1 : 수준별 학급 편성은 바람직하지도, 효율적이지도 않습니다. 수준별로 학급이 편성된 이후 학생들 사이의 위화감이 증가했습니다. 성적에 따른 차별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의 최상위 수준 학급에 편성된 학생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나머지 학생들 대부분은 불합리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분위기는 하위 수준 학급에 속한 학생들의 학습 의욕을 크게 저하시킵니다. 실제로 수준별로 학급이 편성된 이후 진행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대다수 학생들이 학업에 대한 의욕이 줄어들었다고 답변했습니다.

「연결논리」 근거에 따르면, 반대1은 수준별 학급 편성의 부정적인 측면만 언급하였지, 이 방식의 구체적인 의의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다.

② [근거] [정답]의 [근거]와 동일

③ [근거] 33~38행 - 일부의 최상위 수준 학급에 편성된 학생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나머지 학생들 대부분은 불합리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분위기는 하위 수준 학급에 속한 학생들의 학습 의욕을 크게 저하시킵니다. 실제로 수준별로 학급이 편성된 이후 진행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대다수 학생들이 학업에 대한 의욕이 줄어들었다고 답변했습니다.

⑤ [근거] ①의 [근거]와 동일

「연결논리」 근거에 따르면, 반대1은 수준별 학급

편성 때문에 불합리한 대우를 받아 불만이 있다는 학생들의 반응을 언급했을 뿐이지, 학생들의 성적이 서로에게 공개되는 것을 우려하는 것과 관련된 언급은 하지 않았다.

4. [정답선택지해설]

④ [근거] 30~43행 - 반대1 : 수준별 학급 편성은 바람직하지도, 효율적이지도 않습니다. 수준별로 학급이 편성된 이후 학생들 사이의 위화감이 증가했습니다. 성적에 따른 차별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의 최상위 수준 학급에 편성된 학생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나머지 학생들 대부분은 불합리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분위기는 하위 수준 학급에 속한 학생들의 학습 의욕을 크게 저하시킵니다. 실제로 수준별로 학급이 편성된 이후 진행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대다수 학생들이 학업에 대한 의욕이 줄어들었다고 답변했습니다.

사회자 : 이번에는 찬성 측에서 반대 신문 해 주십시오.

찬성3 : 메 학기마다 직전 학기 성적을 기준으로 학급을 재편성합니다. 상위 수준 학급으로 올라가겠다는 확실한 목표를 바탕으로 충분한 동기부여가 이루어진다면 학업의욕 저하는 쉽게 해결될 것입니다.

「연결논리」 근거에 따르면, 수준별 학급 편성을 다수의 학생들이 성적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여기며, 이로 인해 불만을 품은 다수의 학생들의 학습 의욕이 저하되고 있다는 문제점을 반대1이 지적하였다. 이에 대해, 찬성3은 [B]에서 수준별 학급 편성은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메 학기마다 직전 학기 성적을 기준으로 학급을 재편성하는 유동적인 특징이 있어서, 학생들에게 학업에 대한 동기부여를 제공한다는 측면을 언급하며 기존 제도(수준별 학급 편성)를 옹호하고 있다. 따라서, 선지의 진술이 적절하다.

[오답선택지해설]

① [근거] 위 글의 [A]

② [근거] ①의 [근거]와 동일

「연결논리」 근거에 따르면, 반대3은 [A]에서 찬성1이 기존 제도를 옹호하는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찬성1의 주장의 타당성 여부를 따질 수 없음을 지적하며 찬성 측에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할 것을 요구한 것이지, 기존 제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은 아니다.

③ [근거] 위 글의 [B]

「연결논리」 근거에 따르면, 반대1이 기존 제도가 학생들의 학습 의욕을 저하시킨다고 문제를 제기하자, 찬성3은 [B]에서 성적에 따른 반 재편성이 유동적인 특징이 있고, 이것이 학생들에게 학업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여 학습 의욕 저하를 막는다는 기존 제도의 장점을 제시하며 반대1이 기존 제도에 대해 간과한 사실을 언급하였으나, 새로운 관점에서의 해결책은 요구하지 않았다.

⑤ [연결논리] 위 글의 [A], [B] 가운데 [A]에만 해당된다.

5. [정답선택지해설]

④ [근거] 9~15행 - 찬성1 : 학생들의 수준별로 학급을 따로 편성하여 수업하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한 학년에는 다양한 수준의 학생들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학생들의 수준에 무관하게 편성된 학급에서는 어쩔 수 없이 수업 수준을 중위권 학생들에게 맞추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일부의 중위권 학생에게만 이익이 될 뿐입니다. 상대적으로 학습의 다수를 차지하는 상위 또는 하위 수준을 가진 학생들은 손해를 보게 됩니다.

「연결논리」 근거에 따르면, 찬성1은 기존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는 일부 중위권 학생들에게만 이익이

되고 나머지 다수의 학생들에게는 손해가 되는 구조였음을 지적하고 있으므로, 선지의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선택지해설】

① [근거] 위 글의 [A]

② [근거] 30~43행 - 반대1 : 수준별 학급 편성은 바람직하지도, 효율적이지도 않습니다. 수준별로 학급이 편성된 이후 학생들 사이의 위화감이 증가했습니다. 성적에 따른 차별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의 최상위 수준 학급에 편성된 학생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나머지 학생들 대부분은 불합리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분위기를 하위 수준 학급에 속한 학생들의 학습 의욕을 크게 저하시킵니다. 실제로 수준별로 학급이 편성된 이후 진행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대다수 학생들이 학업에 대한 의욕이 줄어들었다고 답변했습니다.

사회자 : 이번에는 찬성 측에서 반대 신문 해 주십시오.

찬성3 : 매 학기마다 직전 학기 성적을 기준으로 학급을 재편성합니다. 상위 수준 학급으로 올라가겠다는 확실한 목표를 바탕으로 충분한 동기부여가 이루어진다면 학업의욕 저하는 쉽게 해결될 것입니다.

③ [근거] 24~28행 - 찬성2 : 수준별 학급 편성이 이루어지기 전의 성적 분포와 수준별로 학급을 편성한 이후의 평균 성적 분포를 제시하겠습니다. 시행 전과 후, 총 4개 년도의 성적이기 때문에 다소 적은 양이지만, 이에 따르면 성적 향상 경향은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⑤ [근거] 40~46행 - 찬성3 : 매 학기마다 직전 학기 성적을 기준으로 학급을 재편성합니다. 상위 수준 학급으로 올라가겠다는 확실한 목표를 바탕으로 충분한 동기부여가 이루어진다면 학업의욕 저하는 쉽게 해결될 것입니다.

반대2 : 그러한 동기부여조차도 각 학급에서 성적이 높은 일부 학생들에게만 가능합니다. 대다수 학생들은 현 수준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버겁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6. 【정답선택지해설】

② [연결논리] [A]를 보면, 우선 카오스의 어원이 그리스어에서 유래된 것과 함께 반의어인 ‘코스모스’를 제시하여 카오스의 의미를 설명하고(㉔), 그 다음에 그리스 신화나 구약성서와 같은 과거의 문헌들에서 나타나는 카오스의 의미를 제시하며(㉕), 그 이후에 과거 18~19C 신학에서 발견되는 ‘카오스학’이라는 활용 사례를 알려주며 카오스에 대한 이해를 돕고(㉖), 오늘날 카오스가 수학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는 양상을 서술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㉗). 따라서, ㉔~㉗가 [A]에 반영된 순서로 적절한 것은 ㉔→㉕→㉖→㉗이다.

7. 【정답선택지해설】

② [연결논리] [B]를 바탕으로 <보기>를 분석하면, 날씨의 영향을 주는 요소 중에서 계절과 같이 주기성을 띠는 것과 달리, 비구름의 진로는 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에 따라 바뀔 수 있을 정도로 일정한 규칙을 갖지 않는, 즉 주기성이 없는 요소이고, 이러한 요소는 카오스 이론의 예측 대상이므로, 선지의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선택지해설】

① [근거] 2문단 1행 - 봄·여름·가을·겨울과 같은 계절의 특성은 알기 쉽다. + 2문단 5~10행 - 이런 요소들 중에서 지구의 자전과 공전처럼 규칙적으로 되풀이되는 것을 ‘주기성이 있다’고 말한다. 1년 중의 계절은 주기성을 띠지만 하루의 날씨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주기성 없는 것들, 즉 규칙적이지 않은 것들에 대해 다양한 요소를 바탕으로 예측하는 것이 카오스 이론이다.

③ [근거] ①의 [근거]와 동일

④ [근거] ①의 [근거]와 동일

⑤ [근거] 2문단 1~3행 - 봄·여름·가을·겨울과 같은 계절의 특성은 알기 쉽다. 그러나 이번 주말에 비가 올 것인지 아니면 맑을 것인지를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다.

8. 【정답선택지해설】

③ [연결논리] ㉔을 바탕으로 선지를 보면, 우선 선지의 앞부분에서는 카오스 이론에 대한 본문의 내용인 ‘예측 가능하지 않은 것을 예측’에 대해 ‘의미 있는 예측을 이끌어내기도 했다.’라는 의의를 설명하였다. 그 다음, 선지의 뒷부분에서는 카오스 이론의 예측에 작용하는 많은 변수들 때문에 카오스 이론의 예측이 정확한 결과를 확정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제시하였다. 이렇게 이 선지는 ㉔이 요구하는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고 있으므로, ㉔에 들어갈 적절한 내용이 다.

【오답선택지해설】

① [연결논리] 선지의 앞부분부터 이미 본문의 카오스 이론에 대한 설명과 배치된다.

② [연결논리] 선지의 진술은 본문 내용과 충돌하지는 않으나, ㉔과는 무관하다.

④ [연결논리] 카오스 이론의 예측이 임의적이고 이론적인 가설에 불과한 것인지는 본문에서 확인하기 어렵다.

⑤ [연결논리] 카오스라는 용어가 다양한 매체들을 통해 알려져 친숙한 용어가 된 것은 맞으나(1문단 7~10행), 이것이 카오스 이론의 의의라고 보기는 어렵고, 카오스 이론의 한계라고 볼 만한 내용은 선지에서 확인할 수 없다.

9. 【정답선택지해설】

③ [연결논리] 초고를 보면, 학생은 눈앞에 닥친 일들에 대해 부담을 느끼며 이 일들을 처리할 업무가 나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1문단), ‘업무’라는 단어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서 자신이 현재 처한 상황 때문에 그 단어의 의미에 부정의 의미를 더한 의미로 해석하지 않았나 생각해 본 뒤(2문단), 이 생각을 통해 눈앞의 일들을 처리할 업무를 못낸 스스로에 대해 성찰한 뒤 마음을 고쳐먹어 이전과는 다른 삶의 태도를 갖게 되었고(3문단), 놀라운 세상만사에 대해서는 당연하게 받아들이면서도 눈앞에 닥친 (놀라운 세상만사에 비하면 사소한) 자신의 일들에 부담을 느끼는 것이 더 이상하다고 여기며 앞에서 깨달은 것(업무를 내는 것)을 실천할 것을 다짐하며 글을 마치고 있다(마지막 문단). 따라서, 학생이 초고를 작성하며 떠올린 내용은 이를 요약한 선지의 진술이다.

【오답선택지해설】

① [연결논리] 닥친 일들을 감당하지 못할 것 같다는 학생의 생각은 확인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학생의 자기연민은 파악할 수 없다.

② [연결논리] ‘업무’라는 단어가 자신을 무시하는 것처럼 느낀다는 학생의 진술은 있으나, 학생은 ‘업무’라는 단어가 자신의 상황 때문에 뒤에 부정의 의미가 더해진 의미로 해석한 것이지, 그 단어의 본질적 모순에 대해 고민한 것은 아니다.

④ [연결논리] 학생이 비행기와 배를 떠올린 것은, 비행기나 배와 같은 놀라운 것들도 당연하게 여기면서, (그 일들에 비하면 사소한) 자신의 눈앞의 일들에 부담을 느끼는 것이 이치에 맞지 않음을 드러내는 것과 관련이 있지, 그것들은 만든 이들의 도전 정신과는 무관하다.

⑤ [연결논리] 학생이 처한 자신의 상황 때문에 ‘업무’ 뒤에 부정의 의미가 더해진 의미로 해석이 되었다는 것은 알 수 있어도, 학생이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을 한심하게 느낀 것은 파악할 수 없다.

10. 【정답선택지해설】

② [연결논리] ㉔이 쓰인 문맥을 보면, ‘포기를 (하도 록) 조장하는 말로 느껴지는~’이라는 맥락에서 쓰였고, 이때 ㉔에 들어갈 말은 ‘감정이나 상황 따위가 더 심해지도록 영향을 미치다’의 의미인 ‘부추기다(는)’인데, 선지에서는 ‘부추키다’를 써야 한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참고로, ‘부추키다’라는 단어는 존재하지도 않는다.

【오답선택지해설】

① [연결논리] 선지의 진술이 맞다. 다만, 이번 기회에 해설 강의를 통해 의존 명사/조사의 띄어쓰기 원칙에 대해 점검해두자.

③ [연결논리] ㉔은 ‘형태’라는 명사를 수식해야 하므로, ‘부정’ 뒤에 부사격 조사 ‘에’가 아닌 관형격 조사 ‘의’가 와야 한다. 참고로, 관형격 조사는 ‘의’ 하나뿐이다.

④ [연결논리] 선지의 진술이 맞다. 물론, 엄밀하게 다 따져 보는 것이 맞지만, 한국인이려면 ‘업무를 시작할 것이다’라는 문장을 보고 이상하다는 것을 충분히 느낄 수 있지 않을까?

⑤ [연결논리] ㉔이 쓰인 문장을 보면, 달을 정복한 시점은 수십 년 전임을 알 수 있는데, ㉔의 시제는 현재 시제로 사용되어 부적절하므로, 과거 시제로 고쳐야 한다.

11. 【정답선택지해설】

⑤ 작년 수능에서 문제로 출제되었던 사동과 피동의 구별을 그대로 문제로 출제한 것이다. 만약에 이 문제에서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틀렸다면, 문법 공부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다. 이 문제는 사동 관벌법, 피동 관벌법으로 아주 쉽게 짧은 시간내에 판단이 가능하다.

· 사동 관벌법 ‘게 하다’ 와 교환시켜보기
· 피동 관벌법 ‘주어를 목적어로 만들기’ (+피동표현 해제하기)

[연결논리] ㉔ 화가 난 용우가 민지를 ‘울게 했다.’ ‘-게 하다’와 교환이 가능하므로, ㉔이 사동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㉕ ‘마음을’ 놓다. ‘마음이 놓였다’에서 주어를 목적어로 만들고 피동표현을 해제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㉔은 피동표현이다.

【오답선택지해설】

① [연결논리] 첫 번째 문장 - 주체인 아버지가 (자신의) 몸을 녹이는 사동의 상황. ‘녹다’ + ‘이(사동 접미사), 있’ -> ‘녹였다’(O) 두 번째 문장 - 주체인 용우가 물에 젖은 옷을 말리는 사동의 상황. ‘마르다’ + ‘리(사동 접미사)’ -> ‘말리다’(X)

② [연결논리] 첫 번째 문장 - 대상인 세상이 아름다운에 의해 덮여진 피동의 상황. ‘덮다’ + ‘이(피동 접미사), 있’ -> ‘덮였다’(X) 두 번째 문장 - 주체인 임마가 아들에게 옷을 입도록 만드는 사동의 상황. ‘입다’ + ‘히(사동 접미사), 있’ -> ‘입혔다’(X)

③ [연결논리] 첫 번째 문장 - 대상인 그들이 그에게 의해 질린 피동의 상황. ‘질러’는 ‘질리다’의 어미가 활용한 것인데, ‘질리다’의 ‘리’는 피동 접미사와 무관하고 ‘질리다’라는 하나의 단어일 뿐이다.(X) 두 번째 문장 - 주체인 국민이 그녀에게 나라 일을 맡게 한 사동의 상황. ‘맡다’ + ‘기(사동 접미사), 있’ -> ‘맡겼다’(X)

④ [연결논리] 첫 번째 문장 - 대상인 참새가 뱀에게 잡아먹히는 피동의 상황. ‘먹다’ + ‘히(피동 접미사),

있' -> '먹혔다'(X) 두 번째 문장 - 대상인 그의 눈이 피로에 의해 감아지는 피로의 상황. '감다' + '기'(피동 접미사), 있' -> '감겼다'(O)

12. [정답선택지해설]

① [연결논리] <보기>의 ㉠, ㉡을 보면, ㉠의 경우 뒤 음절 초성인 'ㄴ'이 앞 음절 종성인 'ㄹ'에 동화되어 '칼날->칼랄'이 되는 것과 같이 음운 환경에 따라 한 자음이 다른 자음에 동화되는 현상(앞마당->압마당->암마당(앞 음절 종성 ㄴ이 뒤 음절 초성 ㄴ에 동화), 단는->단느(앞 음절 종성 ㄷ이 뒤 음절 초성 ㄴ에 동화), 엄밀히 따지자면, 선지의 경우는 유음화고, ㉡의 경우는 비음화이다.)이 나타나지만, ㉠의 경우 자음 'ㄷ'이 모음 'ㅣ'를 만나 'ㄸ'으로 바뀌는 구개음화 현상이 일어나는데, 구개음화 현상은 '자음'에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모음인 'ㅣ'에 동화되는 것이다. ㉠의 경우는 선지의 진술에 부합하지 않는다.

[그름달's TIP] 구개음화가 동화현상이라는 것은 평가원 기술과 교육청 기술에 많이 출제된 부분입니다. 그러나, 동화 현상이라고 외우기만 한다면 ①번 정답을 골라내기 어려웠을 겁니다. ㄷ, ㄷ이 구개음을 가진 모음 'ㅣ'에 동화되어 (경)구개음인 ㄸ, ㄸ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즉 구개음화되는 것입니다. 자세한 것은 해설 강의를 참조하시고, 평가원은 늘, 외우는 사람보다는 원리를 근본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을 오히려 가려내 왔다는 사실에 비춰보면 아주 좋은 문제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오답선택지해설]

② [연결논리] [정답]의 [연결논리]의 ㉢에 대한 설명 + '젓명울->전명울->전명울'
③ [연결논리] 선지의 '흙이불'은 '흙이불->흔이불->흔니불->흔니불'과 같이 두 형태소가 합쳐지는 부분에서 'ㄴ' 첨가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이제 ㉢을 보면, '직행열차->지강열차->지강열차', '늑막염->능막염->능막염->능막염'의 과정을 거치는데, 여기서도 선지의 '흙이불'과 마찬가지로 두 형태소가 합쳐지는 부분에서 'ㄴ' 첨가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따라서, 선지의 진술은 적절하다.
④ [연결논리] 선지의 '글고'는 '글고->글고->글고'의 과정을 거치며, 이때 받침 자음의 일부인 'ㄱ'이 탈락하는 현상이 발생한다. 이제 ㉢을 보면, '값고->안꼬', '값고->삼고->삼고'의 과정을 거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때 받침 자음의 일부인 'ㄱ'과 'ㄹ'이 탈락하는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 따라서, 선지의 진술은 적절하다.
⑤ [연결논리] 선지의 '농다'는 '농다->노타'의 과정을 거치며 축약 현상이 발생하고, 음절 끝소리 규칙에 의한 교체 현상이 일어나지는 않는다. 이제 ㉠, ㉡을 보면, ㉠에서는 받침 'ㄷ'이 'ㅣ'모음과 만나 'ㄸ'이 되는 구개음화 현상만 있고, ㉡에서는 받침 'ㅎ'이 탈락하는 현상만 있어 선지의 경우와 같이 음절 끝소리 규칙에 의한 교체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 따라서, ㉠, ㉡은 음절 끝소리 규칙과 무관하다.

13. [정답선택지해설]

⑤ [연결논리] (마)를 보면, '쁘다'에 명사형 전성어미 '음' 또는 '음'이 결합하여 '쁘메'로 활용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때 '쁘+음'이 결합했고, 'ㅡ'는 탈락합니다. 그래서 '쁘'이 되고 여기에 부사격 조사 '에'가 붙습니다. 결국 '쁘메'가 되어 마지막으로 이어적기가 되어 '쁘메'가 됩니다. 지금 핵심은 모음조화가 지켜진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쁘+음'이 결합했으므로, 음성모음인 'ㅡ', 'ㅣ' 끼리 결합했으니 모음조화는 지켜졌습니다.

[오답선택지해설]

① [연결논리] (가)를 보면, '태자'라는 객체를 높이는 선어말 어미가 속보에서 알 수 있듯이 읊이 쓰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변화과정은 해설강의를 참조.
② [연결논리] (나)를 보면, '세존'이라는 주제를 높이는 선어말 어미 '샤'가 쓰인 것을 파악할 수 있다.
③ [연결논리] (다)를 보면, '이것'이 '어떤 광명'인지에 대해 구체적 설명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설명 의문문의 '고' 계열 의문형 의미가 쓰였음을 파악할 수 있다.
[그름달's TIP] 설명형 의문어미, 판정형 의문어미는 반드시 학습이 되어야 합니다. 작년 9월 문제를 모티브로 낸 것이고, 평가원이 이미 낸 지식의 재활용에 불과합니다. 만약 이런 어미들을 처음 본다고 생각하는 학생이 있다면, 과거 중세 국어 기술 문제의 본문과 선지를 꼼꼼히 체크하기를 바랍니다. 해설강의에서 자세한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④ [연결논리] (라)를 보면, '야수'라는 체인 뒤에 현대어 관형격 조사 '의'에 해당되는 'ㅅ'이 쓰였음을 파악할 수 있다.

14. [정답선택지해설]

④ [연결논리] 위 글을 참조하여 <보기>의 선지를 보면, '화살'은 '활(어근) + 살(어근)'이 결합한 합성어이나, ㉠에 따라 소리나는 대로 표기한 것이고, '우짚다'는 '울-(어근) + 짚-(어근)'이 결합한 합성어이나 ㉠에 따라 소리 나는 대로 표기한 것이므로, 선지의 두 단어는 <보기>의 ㉢의 적절한 예이다.

[오답선택지해설]

① [연결논리] '믿음'->'믿-(어근)+음(접사)'->㉠ '마개'->'막-(어근)+에(접사)'->㉡
② [연결논리] '뺨기'->'뺨-(어근)+기(접사)'->㉢ '무덤'->'묻-(어근)+임(접사)'->㉣
③ [연결논리] '살'->'살-(어근)+ㅁ(접사)'->㉤ '헛웃음'->'헛(접사)+웃음(어근)'->과생어이다. ㉤
⑤ [연결논리] '많이'->' 많-(어근)+이(접사)'->㉤ '날아간다'->'날-(어근)+가-(어근)'->합성어이면서 ㉢을 만족시키는 경우

15. [정답선택지해설]

④ [근거] 2문단 9-12행 - 이처럼 한글 맞춤법에 의해 소리대로 표기된다는 것은 표기가 음운 현상을 반영한다는 것이다. 즉 표기가 소리를 쫓아 간 것이다.

[연결논리] 근거에 따르면, 표기가 소리를 쫓아간다는 것의 의미는 한글 맞춤법 제1항의 '표준어를 소리대로 표기한다'와 같은 의미임을 파악할 수 있다. 이를 전제하고 <보기>를 분석하면, ㉠의 '아기를 낳은'에서의 '낳은'을 발음하면 '나은'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소리대로 표기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선지의 진술과 어긋나는 반면, '네가 나보다 나야'에서의 '나야'의 기본형은 '낫다'일 것이고 이것의 어미가 활용한 것을 어법에 맞게 표기하면 '낫아'이겠지만, ㉡에서는 '나야'로 표기한 것으로 보아 이 경우는 선지의 진술에 부합한다. 하지만, 선지에서는 '낳아'와 '나야' 모두 소리대로 표기했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오답선택지해설]

① [연결논리] '기뻐서'의 경우, 기본형인 '기쁘다'를 고려할 때 어법에 맞게 쓴 표기는 '기쁘어서'지만, 'ㅡ탈락'이라는 음운 변동 현상을 반영한 '기뻐서'로 표기하고 있고, '췌다'의 경우 기본형인 '쓰다'를 고려할 때 어법에 맞는 표기는 '쓰었다'이지만, 'ㅡ 탈락'이라는 음운 변동을 반영한 '췌다'로 표기하고 있으므로,

선지의 진술은 적절하다.

② [근거] 2문단 4-8행 - 또한 용언의 활용형에서도 소리대로 적는 경우가 나타나기도 한다. 사는(살+는), 사시오(살+시오)에서는 표기를 '살는', '살시오'로 적지 않고, 표기를 발음이 나는 대로 적고 있다. 즉 이른바 'ㄹ 탈락' 현상을 그대로 표기에 반영하고 있다.

③ [연결논리] '퍼서'와 '담가'의 경우, 기본형이 '푸다', '담그다'에서 활용형과의 표기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난다. 그래서 언어생활의 편의를 돕고자 이 단어들의 발음을 예측하기 용이하게 하기 위해 소리대로 표기했다고 볼 수 있다.

⑤ [근거] 마지막 문단 6-12행 - 그래서 어법에 맞도록 한다는 또 하나의 원칙이 붙었다. 어법에 맞도록 한다는 것은 발음과 상관없이 형태소의 원형을 밝혀서 표기를 한다는 의미이다. 즉, 표기에 음운 현상이 반영되지 않도록 본래의 형태를 고정시켜서 형태소의 원래 생김새를 밝혀주는 것이다. 예컨대, 우리는 앞에서 언급한, '먹다'의 활용형의 경우, 본래의 형태를 고정시켜서 '먹은, 먹고, 먹는'으로 표기하게 된다.

[16~20] (과학) '전자기파와 일함수'

16. [정답선택지해설]

① [연결논리] 위 글은 빛의 성질을 규정하기 위한 이론들(표이겐스의 빛의 입자설(마지막 문단) -> 맥스웰의 빛의 파동설과 이에 대한 하인리히 헤르츠의 실험(1, 2문단) -> 아인슈타인의 빛의 성질에 대한 이론(3, 4, 5, 마지막 문단, 빛의 입자성과 파동성을 모두 인정))을 통시적 관점에서 소개하고 있다.

[오답선택지해설]

② [연결논리] 위 글은 빛의 성질과 관련된 전문가들의 이론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소개하고 있지, 그 이론들을 전문가의 견해에 기대어 반증하고 있지는 않다.
③ [연결논리] 빛의 특성을 설명하기 위해 다른 대상을 끌어들이어 대조하지는 않았다.
④ [연결논리] 빛의 성질과 관련된 두 이론을 절충한 새로운 이론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⑤ [연결논리] 빛의 성질과 관련된 맥스웰의 이론의 한계를 드러낸 하인리히 헤르츠의 실험을 소개한 것은 맞으나(1, 2문단), 이에 대한 극복방안을 필자가 제시한 것이 아니라, 단지 광전효과를 설명하지 못하는 맥스웰의 이론의 한계를 아인슈타인이 설명한 것을 소개한 것일 뿐이므로, 선지의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17. [정답선택지해설]

⑤ [근거] 2문단 전체 + 3문단 6-8행 - W 는 전자가 금속에서 튀어나오기 위해 필요한 에너지로 일함수라고 부르며 전자가 튀어나오는 음극(-)을 이루는 금속에 의해 결정된다.

[연결논리] 근거에 따르면, 하인리히 헤르츠는 실험을 통해 전자가 금속에서 튀어나오기 위해 필요한 에너지, 즉 일함수가 존재하며, 이는 전자가 튀어나오는 금속판을 이루는 금속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발견했다. 또한, 일함수에 미치지 못하는 에너지를 가진 빛을 금속판에 쏘아주면 그 빛의 세기(강도)가 아무리 크더라도 전자가 튀어나오지 않는데(전자가 갖는 에너지가 일함수 수준이어야 금속판에서 전자가 튀어나오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금속판에 일함수 이상의 에너지를 갖는 빛을 쏘아주어야 한다는 것으로 보아, '금속판에 쏘아주는 빛이 갖는 에너지<전자가 갖게 되는 에너지'라고 볼 수 있다.), 전자가 갖는 에너지는 금속판에 쏘아주는 빛의 파장과 반비례하기 때문에, 결국 전자가 튀어나오는 임계 파장보다 긴 파장을 가진 빛을 금속판에 쏘아주면 그

빛의 세기가 아무리 크더라도 전자가 튀어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런데 하인리히 헤르츠의 실험에 의한 발견은 전자가 금속판에 쏘아준 빛에서 에너지를 일정 시간동안 축적한 뒤에 금속판에서 튀어나온다는 맥스웰의 이론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선지의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선택지해설]

① [근거] 5문단 6-10행 - 또 이때에 같은 주파수의 빛의 양을 증가시키면 전류는 증가하지만 전류를 흐르지 않게 하는 전압 V 에는 변화가 없다. 이렇게 하여 아인슈타인은 헤르츠와 그 외의 물리학자들이 발견한 광전효과를 간단하게 설명하였다.

② [근거] 2문단 1-2행 - 그 후의 여러 실험에서 이렇게 발생한 전자가 가지는 에너지는 조사하는 빛의 파장이 짧은 것일수록 더 크다라는 것이 밝혀졌다. + 3문단 1-12행 - 아인슈타인은 이것을 간략하고 명쾌한 설명으로 해결하였다. 그는

$hf = \frac{1}{2}mv^2 + W$ 라는 간단한 식으로 광전효과를 설명했다. 여기서 h 는 플랑크 상수를 의미하며 고정된 값을 가지고 f 는 비추는 빛의 주파수를 가리킨다. 또한 플랑크 상수와 빛의 주파수의 곱은 비추는 빛의 에너지가 된다. 그리고 m 은 발생하는 전자의 질량이고 v 는 그 전자의 튀어나오는 속도이다. W 는 전자가 금속에서 튀어나오기 위해 필요한 에너지로 일함수라고 부르며 전자가 튀어나오는 음극(-)을 이루는 금속에 의해 결정된다. 아인슈타인이 제시한 위의 식은 에너지의 보존법칙을 보여준 것에 불과하다. 즉, 등호의 좌변인 hf 는 입사하는 빛이 가지는 에너지이고, 우변의 첫 항은 튀어나온 전자가 가지는 운동에너지, W 는 전자가 금속에서 빠져 나오기 위해 필요한 에너지이다. + 4문단 전체

[연결논리] 근거에 따르면, 아인슈타인이 광전효과를 설명하기 위해 제시한 식을 보면, 플랑크 상수 h 와 빛의 주파수 f 의 곱은 전자가 갖는 에너지와 일함수의 합인데, h 는 상수이고 W 도 전자가 금속에서 튀어나오는데 필요한 에너지이기 때문에 (금속판이 바뀌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상수이므로, 결국 빛의 주파수 f 와 전자가 갖는 에너지 $\frac{1}{2}mv^2$ 는 비례 관계를 알 수 있다. 그리고 전자가 갖는 에너지는 음극의 금속판에 비추는 빛의 파장에 반비례한다고 하였다. 이를 종합하면, 음극의 금속판에 비추는 빛의 파장이 클수록 빛의 주파수는 작아짐을 알 수 있다.

③ [근거] 1문단 1-5행 - 1873년 맥스웰은 진동하는 전자기장은 하나의 파동을 발생시킨다고 예측하였고 이 파동을 전자기파라 부르며 그 성질을 예언하였다. 그는 전자기 이론에 의해 계산된 전자기파의 속도가 진공 중의 빛의 속도와 일치하며 자외선, 적외선, 가시광선과 같은 빛이 바로 전자기파의 일종이라고 주장하였다. + 2문단 14-17행 - 그러나 광전효과 실험에서는 이러한 예상과는 달리 일함수보다 짧은 파장의 빛을 비추면 즉시 전자들이 나오기 때문에 맥스웰의 이론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했다.

④ [근거] 2문단 4-9행 - 그리고 전자가 금속의 표면으로부터 튀어나오는 데 필요한 빛의 최소 에너지가 존재하고, 이 최소의 에너지는 금속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알았다. 이 최소의 에너지라는 것은 이 에너지보다 작은 에너지를 가진 빛을 쏘아주면 그 강도가 아무리 높아도 전자가 금속의 표면에서 튀어나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 3문단 6-8행 - W 는 전자가 금속에서 튀어나오기 위해 필요한 에너지로 일함수라고 부르며 전자가 튀어나오는 음극(-)을 이루는 금속에 의해 결정된다. + 4문단 1-5행 - 예를 들어, 일함수보다 짧은 파장을 가진 빛을 금속판에 비추었다고 생각해보자. 전자가 튀어나오게 되면 전자는 (-)극을 띠고 있기 때문에 전기적 성질에 의해

(+)전극으로 이끌려간다. 이렇게 전자가 음극에서 양극으로 이동하는 것을 가리켜 전류가 흐른다고 말한다.

18. [정답선택지해설]

⑤ [근거] 3문단 전체 + 4문단 5-7행 - 전류가 처음으로 흐를 때의 빛의 파장을 재면 그때 튀어나온 전자는 운동에너지를 가지지 않는다. 그래서 $v = 0$ 으로 $hf = W$ 가 되어 W 의 값을 알 수 있다. + 5문단 1-6행 - 또한 만약 주파수가 더 높은 빛을 비추게 되면, 발생한 전자들은 더 큰 운동에너지를 가지고 튀어나와 운동하게 된다. 이때 순간적으로 전극을 서로 맞바꾸어 전류가 더 이상 흐르지 않게 하는 최소의 전압을 측정했을 때 그 전압이 V 였다고 한다

면 $eV = \frac{1}{2}mv^2$ 에서 전자의 운동에너지를 구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서 e 는 전자의 전하량으로 알고 있는 물리상수이다.

[연결논리] 근거에 따라 <보기>를 이해하면, 순간적으로 전극을 서로 맞바꾸어 전류가 더 이상 흐르지 않게 되는 최소의 전압과 전자의 전하량의 곱이 전자의 운동에너지인데, 전자의 전하량은 상수이므로, 결국 전류가 더 이상 흐르지 않게 되는 최소의 전압과 전자의 운동에너지는 비례한다. 이를 전제하고, <보기>의 금속 A와 금속 B에 f_2 의 진동수를 가진 빛을 비추었을 때, 진동수 f_1 을 기준으로 전자가 튀어나오는 금속 A의 경우 기준보다 2배 높은 진동수의 빛을 받게 되어 진동수 f_1 의 빛을 받을 때는 운동에너지가 0이었던 금속 A에서 튀어나오는 전자들의 운동에너지가 0을 넘게 되기 때문에, 전류가 더 이상 흐르지 않게 되는 최소의 전압도 0보다 커진다. 반면, 진동수 f_2 를 기준으로 전자가 튀어나오는 금속 B의 경우, 기준과 같은 진동수의 빛을 받게 되어 금속 B에서 튀어나오는 전자들의 운동에너지는 여전히 0이기 때문에, 전류가 더 이상 흐르지 않는 최소의 전압도 0이다. 따라서, 선지의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선택지해설]

① [근거] 3문단 전체 + 4문단 전체

[연결논리] 근거에 따라 <보기>를 이해하면, 금속 A의 경우 $hf_1 = \frac{1}{2}mv^2 + W_1$, 금속 B의 경우 $hf_2 = \frac{1}{2}mv^2 + W_2$ 라는 식을 따르고, $f_2 = 2 \cdot f_1$ 이라는 관계를 가지며, 일함수 W 는 위의 식에서 전자의 운동에너지 $\frac{1}{2}mv^2$ 이 0인 상황에서 구한다. 이 관계를 정리하면, $hf_1 = W_1$, $hf_2 = W_2$ 이고, $f_2 = 2 \cdot f_1$ 이므로, $W_2 = hf_2 = 2 \cdot hf_1 = 2 \cdot W_1$ 이어서, 금속 B의 일함수 W_2 는 금속 A의 일함수 W_1 의 2배임을 파악할 수 있다.

② [연결논리] ①의 [연결논리]에서 언급했듯이, 금속 A에 f_1 의 주파수를 갖는 빛이 입사할 때, $hf_1 = W_1$ 이라는 관계를 도출했고, 플랑크 상수 h 와 빛의 주파수 f 의 곱은 금속에 입사하는 빛이 갖는 에너지라고 하였으므로, 선지의 진술은 적절하다.

③ [근거] 3문단 1-12행 - 아인슈타인은 이것을 간략하고 명쾌한 설명으로 해결하였다. 그는 $hf = \frac{1}{2}mv^2 + W$ 라는 간단한 식으로 광전효과를 설명했다. 여기서 h 는 플랑크 상수를 의미하며 고정된 값을 가지고 f 는 비추는 빛의 주파수를 가리킨다. 또한 플랑크 상수와 빛의 주파수의 곱은 비추는 빛의 에너지가 된다. 그리고 m 은 발생하는 전자의 질에너지의 보존법칙을 보여준 것에 불과하다. 즉, 등호의 좌변인 hf 는 입사하는 빛이 가지는 에너지이고, 우변의 첫 항은 튀어나온 전자가 가지는 운동에너지,

W 는 전자가 금속에서 빠져 나오기 위해 필요한 에너지이다.

[연결논리] 근거에 따라 <보기>를 이해하면, 두 금속에 입사하는 빛의 에너지는 에너지 보존법칙에

의해 발생한 전자의 운동에너지 $\frac{1}{2}mv^2$ 와 일함수 W 의 합과 같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④ [근거] ①의 [근거]와 동일

[연결논리] 근거에 따라 <보기>를 이해하면, 금속판에 전자가 튀어나오기 위해 필요한 에너지인 일함수 이상의 빛이 입사되면 전자가 튀어나오고 이를 전류가 흐른다고 말한다. 그리고, 전류가 흐르는 최소

의 지점인 운동에너지 $\frac{1}{2}mv^2$ 가 0인 지점에서 플랑크 상수 h 와 빛의 주파수 f 의 곱을 일함수 W 값으로 결정할 수 있다. 이를 전제하고 문제를 풀면, f_2 의 진동수를 가진 빛을 비추었을 때, 금속 A에는 일함수 ($W_1 = hf_1$)를 넘는 에너지를 가진 빛이 비춰졌으므로, f_1 의 진동수를 가진 빛을 비추었을 때 튀어나오는 운동에너지가 0인 전자보다 더 큰 운동에너지를 갖는 전자가 튀어나와 전류가 흐를 것이고, 금속 B에도 일함수 ($W_2 = hf_2$)의 에너지를 갖는 빛이 비춰진 것이므로, 운동에너지가 0인 전자가 튀어나와 전류가 흐를 것이다.

19. [정답선택지해설]

⑤ [근거] 4문단 전체 + 5문단 1-6행 - 또한 만약 주파수가 더 높은 빛을 비추게 되면, 발생한 전자들은 더 큰 운동에너지를 가지고 튀어나와 운동하게 된다. 이때 순간적으로 전극을 서로 맞바꾸어 전류가 더 이상 흐르지 않게 하는 최소의 전압을 측정했을 때 그 전압이 V 였다고 한다면 $eV = \frac{1}{2}mv^2$ 에서 전자의 운동에너지를 구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서 e 는 전자의 전하량으로 알고 있는 물리상수이다.

[연결논리] 근거에 따르면, ㉔은 일함수 ($W = hf$)보다 더 큰 에너지를 가진 빛($W = hf$ 식에 있는 주파수 f 보다 더 큰 주파수 값을 갖는 빛)을 금속판에 비추었을 때 발생한 더 큰 운동에너지를 가진 전자들이 튀어나올 때, 순간적으로 전극을 바꾸어 이 전자들이 튀어나오지 못하게 하는 최소의 전압이고,

이 전압은 전자의 운동에너지 $\frac{1}{2}mv^2$ 와 관련이 있지, 이 상황에서 튀어나온 전자 가운데 운동에너지가 0인 전자가 이동하지 못하게 하는 전압과는 무관하다.

[오답선택지해설]

① [근거] 2문단 4-9행 - 그리고 전자가 금속의 표면으로부터 튀어나오는 데 필요한 빛의 최소 에너지가 존재하고, 이 최소의 에너지는 금속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알았다. 이 최소의 에너지라는 것은 이 에너지보다 작은 에너지를 가진 빛을 쏘아주면 그 강도가 아무리 높아도 전자가 금속의 표면에서 튀어나오지 않는량이고 v 는 그 전자의 튀어나오는 속도이다. W 는 전자가 금속에서 튀어나오기 위해 필요한 에너지로 일함수라고 부르며 전자가 튀어나오는 음극(-)을 이루는 금속에 의해 결정된다. 아인슈타인이 제시한 위의 식은 다는 것이다.

② [근거] 2문단 9-14행 - 이 내용은 맥스웰의 이론으로는 도저히 설명이 불가능한 것이었다. 맥스웰의 이론에 따르면 빛의 강도가 높으면 더 많은 전자가 나와야 하고, 또 전자가 금속의 표면에서 튀어나오기 위해서는 빛을 오랫동안 흡수하여 충분한 에너지를 축적해야 하므로 빛을 비춘 후 한참이 지나고 나서야 전자가 나올 수 있다.

③ [근거] 2문단 4-9행 - 그리고 전자가 금속의 표

면으로부터 튀어나오는 데 필요한 빛의 최소 에너지가 존재하고, 이 최소의 에너지는 금속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알았다. 이 최소의 에너지라는 것은 이 에너지보다 작은 에너지를 가진 빛을 쏘아주면 그 강도가 아무리 높아도 전자가 금속의 표면에서 튀어나오지 않는량이고 ν 는 그 전자의 튀어나오는 속도이다. W 는 전자가 금속에서 튀어나오기 위해 필요한 에너지로 일함수라고 부르며 전자가 튀어나오는 음극(-)을 이루는 금속에 의해 결정된다. 아인슈타인이 제시한 위의 식은 다는 것이다. + 2문단 14-17행 - 그러나 광전효과의 실험에서는 이러한 예상과는 달리 임계파장보다 짧은 파장의 빛을 비추면 즉시 전자들이 나오기 때문에 맥스웰의 이론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했다.

④ [근거] 4문단 1-3행 - 예를 들어, 임계 파장보다 짧은 파장을 가진 빛을 금속판에 비추었다고 생각해보자. 전자가 튀어나오게 되면 전자는 (-)극을 띠고 있기 때문에 전기적 성질에 의해 (+)전극으로 이끌려간다.

20. [정답선택지해설]

② [연결논리] ⑥가 쓰인 문맥을 보면, ‘맥스웰은 자기장이 발생시킨 하나의 파동을 전기기파라는 것으로 칭하며~’라는 맥락에서 쓰였고, 이때 ⑥와 바꿔 쓰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어떤 대상을 가리켜 이르다’의 의미인 ‘지칭하다(고)’이다.

[오답선택지해설]

- ① [연결논리] ‘덧추어 서다’의 뜻이다.
 ③ [연결논리] ‘여러 사람 가운데 누구의 이름을 지칭하여 가리키다’의 뜻이다.
 ④ [연결논리] ‘도중에 쉬지 아니하고 끝까지 달리다’의 뜻이다.
 ⑤ [연결논리] ‘빨거나 사르는 물건의 값을 부르다’의 뜻이다.

[21 ~ 25] [과학철학] ‘자연발생설에 대한 반박의 역사’

21. [정답선택지해설]

② [근거] 1문단 1-2행 - 자연발생설이란 생명체가 부모 없이 스스로 생겨날 수 있다는 가설이다. + 2문단 전체 + 3문단 1-7행 - 17세기 이후부터는 자연발생설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기 시작하였는데 그러한 비판은 주로 실험을 통해서 진행되었다. 1665년 프란치스코 레디는 병 두 개에 각각 생선을 넣은 뒤 한 쪽 병은 방치하고, 한 쪽 병은 거즈로 주둥이를 막은 뒤 날벌레가 꼬이지지 여부를 관찰하는 실험을 하였다. 그 결과 주둥이를 막지 않은 병에는 날벌레가 꼬이고 그렇지 않은 병에는 날벌레가 꼬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결논리] 근거에 따르면, 각각의 병에 날벌레가 자연적으로 발생할만한 환경 조성을 위해 두 병에 생선을 넣은 뒤, 한쪽 병만 거즈로 주둥이로 막은 레디의 실험 결과, 거즈로 주둥이를 막지 않은 병과는 달리 거즈를 주둥이로 막은 병에서는 날벌레가 꼬이지 않았고, 이를 통해 날벌레는 부모 없이 생겨나지 않는다는 사실이 입증되었으므로(즉, 날벌레의 경우 자연발생설이 부정되었으므로), 선지의 진술은 적절하다.

[오답선택지해설]

① [근거] 2문단 2-7행 - 책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벼룩, 구더기, 새우, 장어와 같은 각각의 생명체들이 저마다 출몰하는 환경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한다고 주장하였다. 생명의 기초가 되는 ‘생명의 배(胚, germ)’라는 것이 존재하며, 그것이 주변 환경의 물질을 조직하여 생명체가 된다는 설명이었다. 예컨대 벼룩의

‘배’가 자연 상태에 존재하다가 먼지와 결합하여 벼룩이 되는 식이다.

③ [근거] 4문단 1-3행 - 1675년에 레이우엔훅이 미생물을 발견함에 따라 자연발생설은 다시 지지를 받게 된다. 장소 제약 없이 쉽게 번식하는 미생물은 자연발생설의 강력한 근거로 여겨졌다.

④ [근거] 마지막 문단 2-14행 - 이에 파스퇴르는 공기 중에 존재하는 미생물은 공기와 함께 부유하는 먼지를 타고 이동한다는 가설을 세우고, 두 개의 플라스크를 준비한 뒤 한 쪽 플라스크의 목을 변형하여 옆으로 놓인 S자 모양으로 만들었다. 이는 공기는 통과되, 먼지를 타고 이동하는 미생물의 침투를 막으려는 것이었다. 고기국물을 양쪽 플라스크에 채운 뒤 충분히 가열하여 멸균한 다음, 플라스크의 목을 막지 않고 그대로 방치했다. 시간이 지난 뒤 관찰한 결과, 처음 상태로 곧은 목을 가진 플라스크 속의 고기국물에는 미생물이 번식한 반면, 목을 잡아 늘려 변형시킨 플라스크 속의 고기국물에서는 미생물을 찾아볼 수 없었다. 파스퇴르는 이것이 가열 과정에서 수증기가 되었다가 구부러진 목에 맺힌 물방울들이 공기 중의 먼지를 막아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고, 이 주장은 받아들여졌다.

[연결논리] 근거에 따르면, 파스퇴르는 자연발생설을 부정하기 위한 실험을 하기 위해 두 개의 플라스크 가운데 하나의 플라스크의 목을 변형하여, 이 플라스크에는 공기가 통과하면서도 미생물이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였다. 그리고 파스퇴르가 실험을 하는 도중에 목을 변형시킨 플라스크의 고기국물에서 미생물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플라스크가 가열되는 과정에서 (고기 국물) 수증기가 되었다가 변형된 목에 맺힌 물방울들이 미생물이 포함된 먼지를 막아낸 것으로 설명하였는데, 이 결과는 파스퇴르가 실험을 통해 발견한 것이지 파스퇴르가 이 결과를 의도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백변 양보해서 이걸 파스퇴르가 의도했다 치더라도, 미생물을 차단한 것은 고온의 수증기가 아니라 그 수증기가 변한 물방울이므로, 어떻게 보더라도 선지의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⑤ [근거] 2문단 8-9행 - 이는 오늘날 자연과학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생기론(生氣論)적 사고에 입각한 주장이었다.

22. [정답선택지해설]

⑤ [근거] 1문단 1-2행 - 자연발생설이란 생명체가 부모 없이 스스로 생겨날 수 있다는 가설이다. + 2문단 전체 + 3문단 1-7행 - 17세기 이후부터는 자연발생설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기 시작하였는데 그러한 비판은 주로 실험을 통해서 진행되었다. 1665년 프란치스코 레디는 병 두 개에 각각 생선을 넣은 뒤 한 쪽 병은 방치하고, 한 쪽 병은 거즈로 주둥이를 막은 뒤 날벌레가 꼬이지지 여부를 관찰하는 실험을 하였다. 그 결과 주둥이를 막지 않은 병에는 날벌레가 꼬이고 그렇지 않은 병에는 날벌레가 꼬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결논리] 근거에 따르면, 레디의 실험은 날벌레가 발생할 수 있는 특정한 환경이 주어진다면 날벌레가 자연발생할 수 있는지 여부를 따졌던 것이고, 이 실험에서 거즈로 주둥이를 막지 않은 병과 달리 거즈로 주둥이를 막은 병에서는 날벌레가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인 생선이 있어도 날벌레가 발생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여 날벌레가 자연발생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왔다. 이를 전제하고 선지를 보면, 주둥이를 막는 데에 사용된 거즈의 색상이 날벌레가 기피하는 색상이라고 하더라도, 이 실험은 날벌레가 좋아하는 환경이 조성되면 날벌레가 외부에서 유입되는지 여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자연발생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생선) 이외의 영향이 없어도 자연발생이 일어나는지의 여부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므로, 거즈의 색상

은 레디의 가설을 약화시킬 근거가 될 수 없다.

[오답선택지해설]

① [근거] 마지막 문단 7-17행 - 고기국물을 양쪽 플라스크에 채운 뒤 충분히 가열하여 멸균한 다음, 플라스크의 목을 막지 않고 그대로 방치했다. 시간이 지난 뒤 관찰한 결과, 처음 상태로 곧은 목을 가진 플라스크 속의 고기국물에는 미생물이 번식한 반면, 목을 잡아 늘려 변형시킨 플라스크 속의 고기국물에서는 미생물을 찾아볼 수 없었다. 파스퇴르는 이것이 가열 과정에서 수증기가 되었다가 구부러진 목에 맺힌 물방울들이 공기 중의 먼지를 막아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고, 이 주장은 받아들여졌다. 이것은 가열하지 않은 공기가 병 안으로 들어갈 수 있으면서도 미생물이 증식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지극히 설득력 있는 자연발생설 부정 실험이었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백조목 플라스크 실험이다.

② [근거] [정답]의 [근거]와 동일

[연결논리] [정답]의 [연결논리]에서도 언급했듯이, 레디의 실험은 날벌레가 자연발생할 수 있는 특정한 환경이 주어진다면 날벌레가 자연발생하는지의 여부에 초점을 맞추고 있을 뿐이다. 이를 전제하고 선지를 보면, 날벌레의 자연발생과 관련이 있는 환경이 생선이 부패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와 날벌레의 자연발생 여부와의 관련성은 위 글에서 확인할 수 없으므로, 생선이 부패하고 있다는 사실은 레디의 가설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

③ [근거] 4문단 4-13행 - 생물학자 스팔란차니는 유기 물질을 가열하면 그 속의 미생물들이 모두 파괴될 것이라고 가정하고, 가열한 유기 물질을 담은 플라스크를 용접하여 밀폐한 뒤 유기 물질이 부패하는지 관찰했다. 실험 결과 유기 물질의 부패를 관찰할 수 없었던 스팔란차니는 미생물이 없는 유기 물질에서는 새로운 미생물이 발생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그러나 곧이어 자연발생설의 지지자들이 플라스크 속에 생명체의 발생에 필요한 만큼의 공기가 없어서 미생물이 생겨나지 않았을 수 있다는 반박을 제기함으로써 자연발생설을 완전히 부정하지는 못했다.

④ [근거] 4문단 4-10행 - 생물학자 스팔란차니는 유기 물질을 가열하면 그 속의 미생물들이 모두 파괴될 것이라고 가정하고, 가열한 유기 물질을 담은 플라스크를 용접하여 밀폐한 뒤 유기 물질이 부패하는지 관찰했다. 실험 결과 유기 물질의 부패를 관찰할 수 없었던 스팔란차니는 미생물이 없는 유기 물질에서는 새로운 미생물이 발생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23. [정답선택지해설]

⑤ [근거] ㉠, ㉡ - 4문단 4-13행 - 생물학자 스팔란차니는 유기 물질을 가열하면 그 속의 미생물들이 모두 파괴될 것이라고 가정하고, 가열한 유기 물질을 담은 플라스크를 용접하여 밀폐한 뒤 유기 물질이 부패하는지 관찰했다. 실험 결과 유기 물질의 부패를 관찰할 수 없었던 스팔란차니는 미생물이 없는 유기 물질에서는 새로운 미생물이 발생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그러나 곧이어 자연발생설의 지지자들이 플라스크 속에 생명체의 발생에 필요한 만큼의 공기가 없어서 미생물이 생겨나지 않았을 수 있다는 반박을 제기함으로써 자연발생설을 완전히 부정하지는 못했다.

㉢, ㉣ - 마지막 문단 1-6행 - 이러한 반박에 가로막혀 자연발생설이 최후를 맞는 때에는 결국 한 세기가 더 필요했다. 이에 파스퇴르는 공기 중에 존재하는 미생물은 공기와 함께 부유하는 먼지를 타고 이동한다는 가설을 세우고, 두 개의 플라스크를 준비한 뒤 한 쪽 플라스크의 목을 변형하여 옆으로 놓인 S자 모양으로 만들었다. 이는 공기는 통하

되, 먼지를 타고 이동하는 미생물의 침투를 막으려는 것이었다.

[연결논리] 근거에 따르면, 스파란차니는 유기 물질을 가열하면 그 속의 미생물들이 모두 파괴된다는 가정 하에, 유기 물질이 들어있는 두 개의 플라스크 가운데 하나를 가열한 뒤 밀폐하여 ㉠ 유기 물질이 들어 있는 방치한 나머지 플라스크와 대조한 결과를 통해 자연발생설을 비판하였으나, 자연발생설의 지지자들은 밀폐된 플라스크에 생명체 발생에 필요한 공기 유입이 차단되었다는 점을 들며 ㉡ 스파란차니의 실험 결과에 의문을 제기하였다. 한편, 파스퇴르는 스파란차니의 실험에 대한 자연발생설 지지자들의 비판을 의식하여, 자연발생설을 부정하는 실험을 할 때 사용한 두 개의 플라스크 가운데 하나의 목을 변형한 백조목 플라스크(㉢)를 사용하였는데, 이 플라스크는 외부의 미생물이 먼지를 타고 유입되는 것은 차단하지만 공기의 유입은 차단하지 않았다(㉣).

24. [정답선택지해설]

④ [근거] 4문단 4-13행 - 생물학자 스파란차니는 유기 물질을 가열하면 그 속의 미생물들이 모두 파괴된 것이라고 가정하고, 가열한 유기 물질을 담은 플라스크를 용접하여 밀폐한 뒤 유기 물질이 부패하는지 관찰했다. 실험 결과 유기 물질의 부패를 관찰할 수 없었던 스파란차니는 미생물이 없는 유기 물질에서는 새로운 미생물이 발생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그러나 곧이어 자연발생설의 지지자들이 플라스크 속에 생명체의 발생에 필요한 만큼의 공기가 없어서 미생물이 생겨나지 않았을 수 있다는 반박을 제기함으로써 자연발생설을 완전히 부정하지는 못했다. + 마지막 문단 1-6행 - 이러한 반박에 가로막혀 자연발생설이 최후를 맞는 데에는 결국 한 세기가 더 필요했다. 이에 파스퇴르는 공기 중에 존재하는 미생물은 공기와 함께 부유하는 먼지를 타고 이동한다는 가설을 세우고, 두 개의 플라스크를 준비한 뒤 한 쪽 플라스크의 목을 변형하여 옆으로 놓인 S자 모양으로 만들었다. 이는 공기는 통하되, 먼지를 타고 이동하는 미생물의 침투를 막으려는 것이었다.

[연결논리] 근거에 따르면, 자연발생설을 부정하려는 스파란차니의 실험에서 실험군으로 사용된 밀폐된 플라스크에 대해, 자연발생설의 지지자들은 이 플라스크 속에서 생명체가 자연발생 할 때 필요한 공기가 플라스크로 유입되지 못한다는 점을 들며 스파란차니의 실험 결과를 반박하였다. 이러한 반박에 대응하면서도 자연발생설을 부정하고자 했던 파스퇴르는 스파란차니와 달리, 실험에서 실험군으로 사용된 플라스크의 목을 변형하여 먼지를 통한 외부 미생물의 유입은 차단하면서도 플라스크로 공기가 유입될 수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의 이유로 선지의 진술이 적절하다.

[오답선택지해설]

① [근거] 마지막 문단 7-11행 - 고기국물을 양쪽 플라스크에 채운 뒤 충분히 가열하여 멸균한 다음, 플라스크의 목을 막지 않고 그대로 방치했다. 시간이 지난 뒤 관찰한 결과, 처음 상태로 굳은 목을 가진 플라스크 속의 고기국물에는 미생물이 번식한 반면, 목을 잡아 늘려 변형시킨 플라스크 속의 고기국물에서는 미생물을 찾아볼 수 없었다.

② [근거] [정답]의 [근거]와 동일

[연결논리] 선지의 진술은 스파란차니 실험의 실험군 플라스크에 대한 내용인데, 자연발생설 지지자들이 플라스크에 공기가 유입되지 않아 미생물이 자랄 수 없다는 비판을 하자, 그 점을 보완하기 위해 파스퇴르가 플라스크에 공기가 유입되도록 한 것이 ㉠이다.

③ [연결논리] ②의 [연결논리]에서도 설명했듯이,

㉠이 나오게 된 배경인 스파란차니 실험에 대한 자연발생설 지지자들의 비판의 핵심은 실험군 플라스크에 미생물이 자라기 위해 필요한 공기가 유입되지 못한다는 것이지, 멸균과는 무관하다.

⑤ [근거] 마지막 문단 1-6행 - 이러한 반박에 가로막혀 자연발생설이 최후를 맞는 데에는 결국 한 세기가 더 필요했다. 이에 파스퇴르는 공기 중에 존재하는 미생물은 공기와 함께 부유하는 먼지를 타고 이동한다는 가설을 세우고, 두 개의 플라스크를 준비한 뒤 한 쪽 플라스크의 목을 변형하여 옆으로 놓인 S자 모양으로 만들었다. 이는 공기는 통하되, 먼지를 타고 이동하는 미생물의 침투를 막으려는 것이었다.

25. [정답선택지해설]

④ [연결논리] ㉠가 쓰인 문맥을 보면, '가열한 유기 물질을 담은 플라스크 (주둥이 부분)을 용접하여 막아버린 뒤'라는 맥락에서 쓰였고, 이때 ㉠의 사전적 의미는 '셀 틈이 없이 꼭 막거나 닫음'인데, 선지의 진술은 '은폐'의 사전적 의미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나머지 선지들의 진술은 해당 어휘의 사전적 의미로 적절한 것이니 이번 기회에 점검해 두자.

[26~30] (법) '행정행위의 취소와 공정력'

26. [정답선택지해설]

③ [연결논리] 위 글은 위 글의 제재인 '공정력'과 관련이 있는 구체적 사례로부터 중심 화제를 제시한 후 (1문단), '공정력'과 관련된 개념들(ex. 행정행위의 취소(3문단), 행정행위의 효력과 위법성(마지막 문단) 등)을 검토하면서 앞서 제시된 구체적 사례에 적용하며 논지를 구체화하고 있으므로, 선지의 진술이 적절하다.

[오답선택지해설]

① [연결논리] 위 글의 제재인 '공정력'과 관련이 있는 구체적 사례(1문단)에서 김 씨의 건물 철거에 대한 김 씨와 분당구청의 갈등이 생겼다고 볼 수는 있어도, 이들의 주장의 근거들을 비교, 평가하고 있지는 않다.

② [연결논리] 위 글의 전반부(사실 어느 부분에서도 찾기 힘들지만)에서 위 글의 주제가 제시된 것을 확인할 수 없고, 위 글에 제시된 '공정력'과 관련된 유사한 사례 또한 확인할 수 없다.

④ [연결논리] 위 글의 제재인 '공정력'과 관련이 있는 구체적 사례(1문단)에서 김 씨의 건물 철거에 대한 김 씨와 분당구청 간의 갈등 상황이 나온 것은 맞으나, 여기에서 문제점을 도출했다고 보기는 다소 애매하고, 잘못된 통념에 대해 지적하여 적절한 해결책을 찾는 과정은 파악할 수 없다.

⑤ [연결논리] 위 글의 제재인 '공정력'과 관련이 있는 구체적 사례(1문단)에서 김 씨의 건물 철거에 대한 김 씨와 분당구청의 주장은 제시되어 있으나 이것이 위 글의 주장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27. [정답선택지해설]

③ [근거] 3문단 3-7행 - 행정행위의 취소는 행정행위를 행한 주체 스스로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도 있고, 행정행위의 상대방이 행정행위의 주체가 되는 행정청에게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취소를 이끌어낼 수도 있다. 전자를 직권취소라 하고 후자를 생송취소라 하는데

[연결논리] 근거에 따르면, 행정행위의 생송취소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방법은 행정행위의 상대방이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행정청에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것도 있으므로, 행정소송을 해야 한다고 단정적으로 진술한 해당 선택지는 옳지 않습니다.

[그림답]'s TIP 해당 선지는 단정적 진술로 되어있으므로, 평소에 단정적 진술에 대한 충분한 훈련이 되어 있다면 쉽게 틀렸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겁니다. QNA게시판에서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를 하기보다는 반드시 강의를 참조하면서 해당 훈련을 해봅시다.

[오답선택지해설]

① [근거] 2문단 1-6행 - 행정의 주체가 법을 집행하기 위해 공권력을 발동한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력(公定力)'이라는 것이 인정된다. 공정력이 인정되면 어떠한 행정행위가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되기 전까지는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다시 말해 행정행위의 하자가 공식적으로 확인되기 전까지는 해당 행위는 효력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는 것이다. + 5문단 전체

[연결논리] 근거에 따르면, 행정주체는 행정행위의 하자가 공식적으로 확인되기 전까지 공정력이 인정되는 한 행정행위를 집행할 수 있다. 물론, 행정행위의 하자가 너무 중대하고 명백하면 공정력 자체가 인정되지 않으나, 이 행정행위의 효력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는 여전히 행정행위의 하자에 대한 공식적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결국 행정주체는 하자 여부와 무관하게 공정력이 인정되는 한 행정행위를 집행할 수 있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② [근거] 3문단 3-9행 - 행정행위의 취소는 행정행위를 행한 주체 스스로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도 있고, 행정행위의 상대방이 행정행위의 주체가 되는 행정청에게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취소를 이끌어낼 수도 있다. 전자를 직권취소라 하고 후자를 생송취소라 하는데, 어떤 방식이건 이러한 절차를 통해 행정행위가 공식적으로 취소되면 공정력이 소멸되고 행정행위의 효력 또한 사라진다.

④ [근거] ②의 [근거]와 동일

⑤ [근거] 5문단 1-4행 - 공정력이 언제나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행정행위의 하자가 너무나 중대하면 서로 명백하다면 해당 행위의 효력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간주되는데, 이 경우에는 처음부터 행위 자체에 효력이 없었으므로 공정력 또한 존재할 수 없게 된다.

28. [정답선택지해설]

② [근거] 2문단 전체 + 3문단 3-9행 - 행정행위의 취소는 행정행위를 행한 주체 스스로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도 있고, 행정행위의 상대방이 행정행위의 주체가 되는 행정청에게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취소를 이끌어낼 수도 있다. 전자를 직권취소라 하고 후자를 생송취소라 하는데, 어떤 방식이건 이러한 절차를 통해 행정행위가 공식적으로 취소되면 공정력이 소멸되고 행정행위의 효력 또한 사라진다.

[연결논리] 근거에 따르면, 어떠한 행정행위에 대한 ㉠이 인정되면 이 행정행위가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취소되기 전까지는 효력이 인정되며, ㉠을 취소하는 절차는 어떠한 행정행위를 행한 행정 주체가 직권으로 취소하거나 그 행정행위의 상대방이 행정청에 행정심판을 제기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있다. 이를 전제하고 선지를 보면, 사례에서 김 씨 소유의 건물을 철거하라는 행정행위를 발동한 주체는 분당구청이고 이를 발동한 순간부터 ㉠이 인정되는데, 만약 분당구청이 철거명령을 직권으로 취소했다면 ㉠이 취소되어 그 행정행위의 효력도 취소되기 때문에, 이 행정행위의 상대방인 김 씨가 분당구청의 행정행위에 대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없어진다.

[오답선택지해설]

① [근거] 4문단 전체

- ③ [근거] 3문단 3-9행 - 행정행위의 취소는 행정행위를 행한 주체 스스로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도 있고, 행정행위의 상대방이 행정행위의 주체가 되는 행정청에게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취소를 이끌어낼 수도 있다. 전자를 직권취소라 하고 후자를 경송취소라 하는데, 어떤 방식이건 이러한 절차를 통해 행정행위가 공식적으로 취소되면 공정력이 소멸되고 행정행위의 효력 또한 사라진다. + 5문단 전체
- ④ [근거] 3문단 3-9행 - 행정행위의 취소는 행정행위를 행한 주체 스스로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도 있고, 행정행위의 상대방이 행정행위의 주체가 되는 행정청에게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취소를 이끌어낼 수도 있다. 전자를 직권취소라 하고 후자를 경송취소라 하는데, 어떤 방식이건 이러한 절차를 통해 행정행위가 공식적으로 취소되면 공정력이 소멸되고 행정행위의 효력 또한 사라진다.
- ⑤ [근거] ④의 [근거]와 동일

29. [정답선택지해설]

- ④ [근거] 마지막 문단 7-14행 - 그런데 철거명령은 직권취소나 경송취소 등의 절차를 통해 취소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앞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공정력이 유지된다. 이때 민사소송의 수소법원'이 자의적으로 철거명령의 위법성을 판단할 수 있을까? 다수 학자들의 견해와 판례의 입장에 따르면, 이 경우 민사소송의 수소법원이 문제가 되는 행정행위의 위법성을 판단할 수 있다고 한다. 행정행위의 '효력'이 아닌 '위법성'을 판단하는 것이므로 공정력과는 무관하다는 것이다.

[연결논리] 근거에 따라 <보기>를 이해하면, (다)의 경우 A구청이 행정행위를 집행하여 갑의 건물을 철거하자, 갑은 이 행위가 부당하다고 여겨 국가를 대상으로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하지만, 갑이 A구청의 행정행위에 대한 경송취소를 위해 행정소송을 준비를 하는 중이라는 것으로 보아, (다)에서는 A구청의 행정행위에 대한 공정력이 인정이 되는 상황이다. 이 상황에서 갑은 A구청에 대해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A구청의 행정행위인 철거명령의 위법성 여부는 판결을 통해 판단받을 수 있으나, 철거명령의 효력 여부는 판단받을 수 없다.

[오답선택지해설]

- ① [근거] 3문단 3-9행 - 행정행위의 취소는 행정행위를 행한 주체 스스로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도 있고, 행정행위의 상대방이 행정행위의 주체가 되는 행정청에게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취소를 이끌어낼 수도 있다. 전자를 직권취소라 하고 후자를 경송취소라 하는데, 어떤 방식이건 이러한 절차를 통해 행정행위가 공식적으로 취소되면 공정력이 소멸되고 행정행위의 효력 또한 사라진다.
- ② [근거] 3문단 3-6행 - 행정행위의 취소는 행정행위를 행한 주체 스스로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도 있고, 행정행위의 상대방이 행정행위의 주체가 되는 행정청에게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취소를 이끌어낼 수도 있다.
- ③ [근거] ①의 [근거]와 동일
- ⑤ [근거] 5문단 전체 + 마지막 문단 7-14행 - 그런데 철거명령은 직권취소나 경송취소 등의 절차를 통해 취소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앞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공정력이 유지된다. 이때 민사소송의 수소법원'이 자의적으로 철거명령의 위법성을 판단할 수 있을까? 다수 학자들의 견해와 판례의 입장에 따르면, 이 경우 민사소송의 수소법원이 문제가 되는 행정행위의 위법성을 판단할 수 있다고 한다. 행정행위의 '효력'이 아닌 '위법성'을 판단하는 것이므로 공정력과는 무관하다는 것이다.

[연결논리] [정답]의 [연결논리]에서도 언급했듯이, 갑이 A구청을 대상으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는 A구청의 행정행위에 대한 위법성 여부만 판단한다고 하였지, 효력 여부에 대해 판단한다고 하지는 않았으므로, (다)에서 갑이 A구청에 대해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갑의 승/패와는 무관하게 철거명령의 효력은 유지된다. 다만, (다)의 재판에서 A구청의 행정명령의 위법성이 인정된다면, 이것은 A구청의 행정행위에 명백한 하자가 있다는 증거가 될 수는 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A구청의 행정행위의 효력(공정력)을 무력화하려면 직권취소나 경송취소의 절차를 거쳐야 하지, (다)의 재판만으로 A구청의 행정행위의 효력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는 없다.

30. [정답선택지해설]

- ② [연결논리] ⑥가 쓰인 문맥을 보면, '(철거명령) 발동된 이상, 권한 있는 기관이 그것을 취소하기 전까지는 효력이 계속된다.'라는 맥락에서 쓰였고, 이때 ⑥와 바뀌 쓰기에 적절한 것은 '어떤 상태를 오래 계속하다'의 의미인 '지속하다'(된다)'이다.

[오답선택지해설]

- ① [연결논리] 부인하다 - '어떤 내용이나 사실을 옳거나 그르하다고 인정하지 아니하다' 거부하다 - '요구나 제의 따위를 받아들이지 않고 물리치다'
- ③ [연결논리] 보호하다 - '위험이나 곤란 따위가 미치지 아니하도록 잘 보살피 돌보다' 담보하다 - '맡아서 보증하다'
- ④ [연결논리] 간주하다 - '상태, 모양, 성질 따위가 그와 같다고 보거나 그렇다고 여기다' 추정하다 - '미루어 생각하여 추정하다'
- ⑤ [연결논리] 받아들이다 -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비판 따위를 찬성하여 따르거나, 옳다고 인정하다' 수령하다 - '돈이나 물품을 받아들이다'

[31~36] (갈래 복합) (가) '전계 소설에 대한 연구' / (나) 이문구, '판촌수필' EBS 수능특강 167~169면. (2002년 수능, 2009년 수능 기출) / (다) 이육, '유광역전' EBS 수능특강 200~202면.

31. [정답선택지해설]

- ④ [근거] (가) 2, 3, 4문단 전체
- [연결논리] 근거에 따르면, 전통적인 전에서는 당대 사회가 장려하는 이념과 규범을 실천한 역사적으로 기릴 만한 인물만을 입전 대상으로 한정했다. 반면에, 후대의 전에서는 전통적인 전의 입전 대상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평범한 사람들과지도 입전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렇게 전의 입전 대상이 확장되는 흐름의 영향을 받은 결과 전계 소설이 탄생하게 된 것이므로, 선지의 진술이 적절하다.

[오답선택지해설]

- ① [근거] (가) 4문단 4-7행 - 이와 같은 전의 변화는 '전(傳)계 소설'의 탄생으로 이어졌는데 '전계 소설'이란 전의 전통 속에서 창작되었지만 전보다는 소설로서의 성격을 더 많이 가지는 작품들을 일컫는다.
- ② [근거] ①의 [근거]와 동일
- ③ [근거] (가) 2문단 전체
- ⑤ [근거] 4문단 4-7행 - 이와 같은 전의 변화는 '전(傳)계 소설'의 탄생으로 이어졌는데 '전계 소설'이란 전의 전통 속에서 창작되었지만 전보다는 소설로서의 성격을 더 많이 가지는 작품들을 일컫는다. + 마지막 문단 전체

32. [정답선택지해설]

- ② [근거] (가) 1문단 전체 + (나) 마지막 문단 13-19행 - 그는 보통학교만을 겨우 마친 뒤 어려서부터 생일이 몸에 배었던 한갓 농투성이었으니까. 구

태어 시체에 맞춰 석공에게 이름을 주자면 석재 수집가라고나 할는지 그는 태깅과 크기가 저마다 다른, 일상에 쓸모 있는 돌들로만 모았던 것이며, 남의 집 아궁이 붓돌이나 방고래를 놓는 데에, 더러는 이웃에서 굴뚝이나 담장을 쌓든가 장독대를 늘리는 데에 기꺼이 나눠주곤 하였다. + (다) 3-5행 - 당시 시골 풍속에 과거 시험을 보는 자를 대신하여 글을 써 주며 생계를 꾸려 가던 자가 많았다. 광역도 대신 글을 써 주는 제주로 이득을 취하였다.

[연결논리] 근거에 따르면, 전의 형식에서 입정기술은 입전 인물의 인적 사항(가계·신분·성명·거주지 등)에 대한 내용을 서술하는데, (나)의 입전 인물인 신현석(석공)의 돌 나눠주기와 (다)의 입전 인물인 유광역의 대신 글 써주기는 (나), (다)의 입전 인물의 인적 사항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입전 인물의 행적에 해당되므로, 선지의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선택지해설]

- ① [근거] (가) 2문단 전체 + (나) 마지막 문단 13-14행 - 그는 보통학교만을 겨우 마친 뒤 어려서부터 생일이 몸에 배었던 한갓 농투성이었으니까. + (다) 1-5행 - 유광역은 영남 합천군 사람이다. 그는 시를 어느 정도 지을 줄 알았으며 과체(科體)를 잘한다고 남쪽 지방에 소문이 났다. 그의 집은 가난하였고, 그의 신분은 낮았다. 당시 시골 풍속에 과거 시험을 보는 자를 대신하여 글을 써 주며 생계를 꾸려 가던 자가 많았다. 광역도 대신 글을 써 주는 제주로 이득을 취하였다.

③ [근거] (가) 4문단 1-4행 - 대표적으로 이육은 하층민을 입전인물로 삼아 그들에 의해 윤리와 도덕이 지켜지는 모습을 통해 양반 사대부들의 부조리를 풍자하는 한편 몰락사대부의 의식구조를 통해 타락한 양반들과 사회체제를 비판하기도 하였다. + (가) 마지막 문단 5-9행 - 이문구 전계 소설에서 집중적으로 다루어지는 인물은 대부분 노동자나 농민 등 신분적으로는 특별히 자랑할 게 없지만, 자신을 드러내고 이익을 먼저 챙기기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고 양보하는 따뜻하고 순박한 심성을 지닌 이들이다. + (나) 마지막 문단 1-13행 - 석공은 신서방의 4남 5녀 가운데서 맏아들이었다. 그가 돌에 대한 관심을 언제부터 가졌던 것인지는 어렵되 않지만, 돌에 대해 유난히 깊은 애정을 품은 듯했고, 완상하는 여유도 지니고 있었던가 보았다. 나는 석공의 그런 일면을 요즘 배부분 사람들의 수석 취미에 견주어 본 일은 없다. 자정 탐석가니 수석연구가니 하면서 체중 줄이기 운동 삼아, 또는 신경성 소화불량 치료제로 돌아다니며 정원 장석용 정석(定石) 장사에 뜻을 둔 그 사람들의 구차스러움에 비길 수는 없었던 것이다. 요즘은 사람들은 돌을 주워다 물형석(物形石)이니 산수경석(山水景石)이니 추상석(抽象石), 문양석(紋樣石)이라고 부르며, '창세기', '환호(幻湖)', '천녀(天女)' 하고 하는 값싼 제목으로 장난질을 하되만 석공은 그런 놀이 할 만큼 돈이나 여가가 없었고, 그런 제목을 꾸며낼 뿐수로 유식하지도 않았었다.

[연결논리] 근거에 따르면, (다)의 몇몇 선비들은 대부분의 사람들과 달리, 광역의 부정적인 행동을 비판한다는 점에서 서술자에게 비판의 대상이 아니지만, (나)의 배부분 사람들은 돌을 가지고 허세를 부릴 생각만 하고 있다는 점에서, 입전 대상인 석공과 대비되어 서술자에게 비판의 대상이 된다.

④ [근거] (가) 4문단 1-4행 - 대표적으로 이육은 하층민을 입전인물로 삼아 그들에 의해 윤리와 도덕이 지켜지는 모습을 통해 양반 사대부들의 부조리를 풍자하는 한편 몰락사대부의 의식구조를 통해 타락한 양반들과 사회체제를 비판하기도 하였다. + (가) 마지막 문단 5-9행 - 이문구 전계 소설에서 집중적으로 다루어지는 인물은 대부분 노동자나 농민 등 신분

적으로는 특별히 자랑할 게 없지만, 자신을 드러내고 이익을 먼저 챙기기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고 양보하는 따뜻하고 순박한 심성을 지닌 이들이다. + (나) 마지막 문단 13-19행 - 그는 보통학교만을 겨우 마친 뒤 어려서부터 생일이 몸에 배었던 한갓 농투성이었으니까. 구태어 시체에 맞춰 석공에게 이름을 주자면 석재 수집가라고나 할는지 그는 태깅과 크기가 저마다 다른, 일상에 쓸모 있는 돌들로만 모았던 것이며, 남의 집 아궁이 붓돌이나 방고래를 놓는 데에, 더러는 이웃에서 굴뚝이나 담장을 쌓든가 장독대를 늘리는 데에 기꺼이 나눠주곤 하였다. + (다) 53-60행 - 광역은 군수에게 잡혀 장차 압송되기 직전에 스스로 두려워하면서 ‘나는 과거 시험과 관련해 부정을 저질렀으므로 잡혀가면 죽을 것이니 가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고 여겨 밤에 친척들과 더불어 실컷 술을 마시고 물레 강에 투신하여 죽었다. 경시관이 이 소식을 듣고 애석해 하였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의 재능을 아까워했지만, 몇몇 선비들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광역은 여러 번 과거 시험에서 부정을 저질렀으므로, 그의 죽음은 마땅한 일이다.”

⑤ [근거] (가) 1문단 전체 + (다) 61-69행 - 매화외사(梅花外史)는 말한다. “세상에 팔지 못할 물건은 없다. 몸을 팔아 남의 종이 되기도 하고 지극히 가는 털과 형체가 없는 꿈까지도 모두 사고 팔 수 있으나, 그 마음을 팔아먹은 사람은 없었다. 아마도 모든 사물은 다 팔 수 있지만 마음은 팔 수 없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지만 유광역은 마음까지도 팔아먹은 자가 아닌가? 아아, 슬프도다. 누가 이 세상에서 가장 천박한 매매를 글 읽은 사람이 한다고 했는가? 법전에는 ‘너물을 주는 것과 받는 것은 죄가 같다.’라고 되어 있다.”

[연결논리] 근거에 따르면, (나)에서는 서술자가 석공에 대한 생각을 드러내기는 하나, (다)와 같이 전의 형식에서 나오는 논찬을 따로 마련하지는 않았다.

33. [정답선택지해설]

④ [근거] ㄴ. (나) 2문단 9-12행 - 옛글에도 “丹可磨 而不可奪其赤 石可破 而不可奪其堅……단사(丹沙)를 갈더라도 그 붉은 빛은 빼앗을 수 없고, 돌을 깨뜨려도 그 굳음은 빼앗을 수 없다”고 일렀음을 알고 있다. + (다) 57-60행 -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의 재능을 아까워했지만, 몇몇 선비들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광역은 여러 번 과거 시험에서 부정을 저질렀으므로, 그의 죽음은 마땅한 일이다.”

ㄷ. (나) 마지막 문단 13-21행 - 그는 보통학교만을 겨우 마친 뒤 어려서부터 생일이 몸에 배었던 한갓 농투성이었으니까. 구태어 시체에 맞춰 석공에게 이름을 주자면 석재 수집가라고나 할는지 그는 태깅과 크기가 저마다 다른, 일상에 쓸모 있는 돌들로만 모았던 것이며, 남의 집 아궁이 붓돌이나 방고래를 놓는 데에, 더러는 이웃에서 굴뚝이나 담장을 쌓든가 장독대를 늘리는 데에 기꺼이 나눠주곤 하였다. 지금 생각이지만 그는 쓸모 있을 성 부른 돌은 무조건 모아놨다가 필요한 이들에게 나눠주는 재미로 돌쟁이(石公)가 됐던 것 같았다. + (다) 61-69행 - 매화외사(梅花外史)는 말한다. “세상에 팔지 못할 물건은 없다. 몸을 팔아 남의 종이 되기도 하고 지극히 가는 털과 형체가 없는 꿈까지도 모두 사고 팔 수 있으나, 그 마음을 팔아먹은 사람은 없었다. 아마도 모든 사물은 다 팔 수 있지만 마음은 팔 수 없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지만 유광역은 마음까지도 팔아먹은 자가 아닌가? 아아, 슬프도다. 누가 이 세상에서 가장 천박한 매매를 글 읽은 사람이 한다고 했는가? 법전에는 ‘너물을 주는 것과 받는 것은 죄가 같다.’라고 되어 있다.”

[연결논리] 근거에 따르면, (나)에서 서술자는 옛글을 인용하여, (다)에서는 작가가 몇몇 선비들의 말을 인용하여 석공과 유광역에 대한 평가를 드러내고 있고(ㄴ), (나)에서 서술자는 석공의 ‘돌 나눠주기’라는 행위에, (다)에서 작가는 유광역의 ‘글 대신 써주기’라는 행위에 의미를 부여하여 자신이 중시하는 가치((나)는 ‘타인을 생각하는 마음’, (다)는 ‘양심을 지키는 것’ 정도가 되겠다.)를 보여주고 있다(ㄷ).

[오답선택지해설]

ㄱ. [연결논리] (나)와 (다) 모두 해당되지 않는다.

ㄸ. [연결논리] (나)의 경우, 서술자인 ‘나’가 아닌 어린 시절 석공의 행동을 지켜본 경험을 어른이 도니 시절에서 서술하여 석공에 대한 정서를 드러낸다고 볼 수도 있으나, (다)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ㄹ. [연결논리] (나)의 경우, 사건의 관찰(석공의 행동을 어린 시절 서술자가 관찰)과 서술(어른이 된 서술자) 사이의 시간적 간격을 두었다고 볼 수 있으나, 석공의 성격을 입체적으로 분석한 것은 아니며, (다)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34. [정답선택지해설]

④ [근거] 마지막 문단 13-21행 - 그는 보통학교만을 겨우 마친 뒤 어려서부터 생일이 몸에 배었던 한갓 농투성이었으니까. 구태어 시체에 맞춰 석공에게 이름을 주자면 석재 수집가라고나 할는지 그는 태깅과 크기가 저마다 다른, 일상에 쓸모 있는 돌들로만 모았던 것이며, 남의 집 아궁이 붓돌이나 방고래를 놓는 데에, 더러는 이웃에서 굴뚝이나 담장을 쌓든가 장독대를 늘리는 데에 기꺼이 나눠주곤 하였다. 지금 생각이지만 그는 쓸모 있을 성 부른 돌은 무조건 모아놨다가 필요한 이들에게 나눠주는 재미로 돌쟁이(石公)가 됐던 것 같았다.

[연결논리] <보기>를 분석하면, (나)에 등장하는 석공의 평소 성품이 잘 드러나는 행위에 대한 내용이 [A]에 들어갈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를 전제하고 (나)를 보면, 평소에는 돌을 모아두었다가 주변 사람들이 굴뚝을 만들거나 담장을 쌓는 것과 같이 그 돌을 필요로 하는 순간이 오면, 석공이 그냥 지나치지 않고 돌을 나눠준 행적이 결국 [A]에 들어갈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석공의 행적을 요약한 선지의 진술이 [A]에 들어갈 수 있다.

[오답선택지해설]

① [근거] (나) 마지막 문단 5-13행 - 자칭 탐석가니 수석연구가니 하면서 체중 줄이기 운동 삼아, 또는 신경성 소화불량 치료제로 돌아다니며 정원 장식용 정석(定石) 장사에 뜻을 둔 그 사람들의 구차스러움에 비길 수는 없었던 것이다. 요즈음 사람들은 돌을 주워다 물형석(物形石)이니 산수경석(山水景石)이니 추상석(抽象石), 문양석(紋樣石) 하고 가르며, ‘창세기’, ‘환호(幻湖)’, ‘천녀(天女)’ 어쩌고 하는 갈잡은 제목으로 장난질을 하지만 석공은 그런 놀이 할 만큼 돈이나 여가가 없었고, 그런 제목을 꾸며낼 혼수로 유식하지도 않았었다.

② [근거] [정답]의 [근거]와 동일

[연결논리] 근거에 따르면, 석공의 행적은 자신이 수집한 돌을 주위 사람이 필요로 할 때 쓸모에 맞게 기꺼이 나눠준 것이지, 석공이 적체적소에서 필요한 역할을 수행한 것은 아니다.

③ [근거] (나) 2문단 4-12행 - 그렇듯 돌은 용모가 곧 쓸모이되 장중한 바위로부터 간지러운 자갈에 이르기까지 타고난 성질만은 매한가지로 같다. 더위에 늘어짐이 없고 장마에 젖으나 물러지지 않으며 추위에 움츠러 들지 않고 바람에 펄금치언정 가버리 날아가지 않는다. 가버워지거나 무거워지지 않고 망치로 얻어맞아 깨지긴 해도 일그러지거나 무뎠해지지

않는다. 옛글에도 “丹可磨 而不可奪其赤 石可破 而不可奪其堅……단사(丹沙)를 갈더라도 그 붉은 빛은 빼앗을 수 없고, 돌을 깨뜨려도 그 굳음은 빼앗을 수 없다”고 일렀음을 알고 있다.

⑤ [연결논리] (나)에서 석공이 어떤 위치에 처한 상황과 그 위기 속에서도 소신을 지킨 모습은 확인할 수 없다.

35. [정답선택지해설]

⑤ [근거] (다) 24-34행 - 경시관(京試官)이 경상 감사를 만난 자리에서 말했다. “영남에서는 글재주로 본다면 누가 으뜸입니까?” 감사가 말했다. “유광역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러자 경시관이 말했다. “이번 과거에 내가 그를 장원으로 뽑겠습니다.” 감사가 말을 이었다. “당신이 그렇게 골라낼 수 있을까요?” “능히 할 수 있습니다.” 마침내 서로 논란을 벌이다가 광역의 글을 알아내느냐 못하느냐로 내기를 하게 되었다. + (다) 48-57행 - 경시관이 비록 그러한 사실을 알았지만 감사가 자기의 글 보는 안목을 믿지 않을 것으로 염려하였다. 그래서 광역이 죄를 범한 사실을 증거로 얻기 위해 함천군에 공문서를 보내어 광역을 잡아 보내도록 하였다. 그러나 경시관은 실제 광역을 옥에 가둬 조사를 할 생각은 없었다. 광역은 군수에게 잡혀 장차 압송되기 직전에 스스로 두려워하면서 ‘나는 과거 시험과 관련해 부정을 저질렀으므로 잡혀가면 죽을 것이니 가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고 여겨 밤에 친척들과 더불어 실컷 술을 마시고 물레 강에 투신하여 죽었다. 경시관이 이 소식을 듣고 애석해 하였다.

[연결논리] 근거에 따르면, 경시관이 유광역의 글을 골라낼 수 있다고 말하자 이를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경상 감사와 내기를 하였고, 이후 치러진 과거 시험에서 경시관은 유광역이 쓴 글을 모두 골라내었다. 하지만, 자신의 글 보는 안목을 경상 감사가 믿지 않을 것이라 여긴 경시관은 과거 시험 부정에 대한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자신의 글 보는 안목을 경상 감사에게 입증하기 위해 유광역을 잡아오라는 명령을 내렸다. 한편, 이러한 경시관의 의도를 알 리가 없는 유광역은 관아에 잡혀가는 것이 두려워 투신자살을 해버리자, 자신의 명령이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낳은 것을 안타깝게 여긴 경시관의 감정이 드러난 것이 ㉠이다. 따라서, 선지의 진술은 ㉠과 무관하다.

[오답선택지해설]

① [근거] (다) 3-14행 - 그의 신분은 낮았다. 당시 시골 풍속에 과거 시험을 보는 자를 대신하여 글을 써 주며 생계를 꾸려 가던 자가 많았다. 광역도 대신 글을 써 주는 재주로 이득을 취하였다. 광역이 일찍이 영남의 향시(鄕試)에 합격하여 서울로 과거를 보러 가는데, 부인들이 타는 수레로 광역을 길에서 맞이하는 사람이 있었다. 얼마 후 광역은 붉은 대문이 몇 겹이며, 으리으리한 건물이 수십 채나 늘어선 집에 도착했다. 집 안에는 얼굴이 해말썽하고 수염이 덩성덩성 난 필경사 몇 사람이 바야흐로 종이를 펴고 광역이 글을 쓰면 그것을 깨끗하게 옮겨 적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 집에서는 안채에 광역의 숙소를 정해 두고 매일 다섯 번 진수선찬을 바치고 주인이 서너 번씩 뵈러 왔다. 광역을 공경히 대하는 것이 마치 아들이 부모를 잘 모시듯 하였다.

② [근거] (다) 15-20행 - 이옥과 회시(會試)를 치렀는데 주인의 아들이 과연 유광역의 글로 진사에 올랐다. 그런 후 주인이 행장을 차려 광역을 집으로 돌려보내는데, 광역은 말 한 필, 종 한 닢을 거느린 채 집으로 돌아왔다. 광역이 집에 돌아와 보니 광역의 재주를 빌리려고 어떤 사람이 돈 2만 냥을 가지고 왔고, 광역이 진 환자(還子) 빛은 감사에게 이미 갚은 터였다.

③ [근거] (다) 24-34행 - 경시관(京試官)이 경상 감사를 만난 자리에서 말했다. “영남에서는 글재주로 본다면 누가 으뜸입니까?” 감사가 말했다. “유광억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러자 경시관이 말했다. “이번 과거에 내가 그를 장원으로 뽑겠습니다.” 감사가 말을 이었다. “당신이 그렇게 골라낼 수 있을까요?” “능히 할 수 있습니다.” 마침내 서로 논란을 벌이다가 광억의 글을 알아내느냐 못하느냐로 내기를 하게 되었다.

④ [근거] (다) 36-49행 - 조금 있다가 과장의 답안을 제출하는 곳에 답안이 하나 들어왔는데, 그 글에

중앙절 놀이가 시월에 펼쳐지니,
북쪽에서 온 손님 남쪽의 태운 술 억지로 먹고 취하였네.

라고 적혀 있었다. 경시관이 ‘이것은 광억의 솜씨가 틀림없다.’라고 생각하고는, 붉은 빛깔의 먹으로 평점을 마구 찍어 이하(二下)의 등급을 매겨 장원으로 뽑았다. 또 어떤 시험 답안은 자못 작법에 합치되므로 2등으로 하였고, 또 하나의 답안을 3등으로 삼았다. 나중에 모두 결봉을 떼어 보니 광억의 이름은 하나도 없었다. 이에 경시관이 물레 조사해 보니, 모두 광억이 남에게 돈을 받은 액수의 많고 적음에 따라 차이나게 한 것이었다. 경시관이 비록 그러한 사실을 알았지만 감사가 자기의 글 보는 안목을 믿지 않을 것으로 염려하였다.

36. [정답선택지해설]

③ [근거] (나) 1문단 전체 + (나) 마지막 문단 19-21행 - 지금 생각이지만 그는 쓸모 있을 성 부른 돌은 무조건 모았다가 필요한 이들에게 나눠주는 재미로 돌쟁이(石公)가 됐던 것 같았다.

[연결논리] <보기>를 참고하여 근거를 이해하면, 석공의 행동을 직접 관찰했던 주체는 ‘어린 나’이기 때문에, 석공의 행적이 드러나는 부분은 모두 과거 ‘어린 나’가 있던 시점으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㉔을 보면, 과거 석공이 ‘돌 나눠주기’라는 행동을 한 것에 대해 서술자가 (석공을 관찰했던 ‘어린 나’가 생각하지 못했던)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㉔는 ‘나이가 든 서술자’의 서술로, 과거 ‘어린 나’가 파악하지 못한 석공의 행적에 대한 의미를 서술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오답선택지해설]

① [근거] (나) 1문단 1-7행 - 그 사람은 내가 일생을 살며 추모해도 다하지 못할 만큼 나이를 얻어 살수록 못내 그림기만 했다. 그의 이름은 신현석(申賢石), 향년 37세였고, 살아 있다면 올해 마흔 여덟이 될 터였다. 이름에 돌 석자가 들어 그랬던 그는 살아생전에 유난히 돌을 좋아했거니와, 돌이켜 따져 보면 그 자신이 천생 돌과 같은 사람이기도 했다. 그래서 모두들 그를 석공(石公)이란 별명으로 부르기를 즐겨하였고 본인도 그런 명칭을 마다하지 않았던 줄 안다.

② [근거] (나) 마지막 문단 1-13행 - 석공은 신서방의 4남 5녀 가운데서 맏아들이었다. 그가 돌에 대한 관심을 언제부터 가졌던 것인지는 어림되지 않지만, 돌에 대해 유난히 깊은 애정을 품은 듯했고, 완상하는 여유도 지니고 있었던가 보았다. 나는 석공의 그런 일면을 요즘 배부른 사람들의 수석 취미에 견주어 본 일은 없다. 자칭 탐석가니 수석연구가니 하면서 제중 줄이치 운동 삼아, 또는 신경성 소화불량 치료제로 돌아다니며 정원 장식용 정석(定石) 장사에 뜻을 둔 그 사람들의 구차스러움에 비길 수는 없었던 것이다. 요즈음 사람들은 돌을 주워다 물형석(物形石)이니 산수경석(山水景石)이니 추상석(抽象石), 문

양석(紋樣石) 하고 가르며, ‘창세기’, ‘환호(幻湖)’, ‘천녀(天女)’ 어쩌고 하는 값싼 제목으로 장난질을 하지만 석공은 그런 놀이 할 만큼 돈이나 여가가 없었고, 그런 제목을 꾸며낼 풍수로 유식하지도 않았었다.

④ [연결논리] <보기>를 참고하여 ㉔을 이해하면, 서술자는 유광억의 글재주를 ‘격이 높지 않은 잔재주’라는 부정적인 주관적 평가를 하여, 입전 인물의 행적을 객관적으로 기술하는 전통적인 전의 서술 방식을 변형하고 있다.

⑤ [근거] (다) 61-69행 - 매화외사(梅花外史)는 말한다. “세상에 팔지 못할 물건은 없다. 몸을 팔아 남의 종이 되기도 하고 지극히 가는 털과 형체가 없는 꿈까지도 모두 사고 팔 수 있으나, 그 마음을 팔아먹은 사람은 없었다. 아마도 모든 사물은 다 팔 수 있지만 마음은 팔 수 없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지만 유광억은 마음까지도 팔아먹은 자가 아닌가? 아아, 슬프도다. 누가 이 세상에서 가장 천박한 매매를 글 읽은 사람이 한다고 했던가? 법전에는 ‘너물을 주는 것과 받는 것은 죄가 같다.’라고 되어 있다.”

[37~42] [갈래 복합] (가) 김춘수, ‘강우’ EBS 수능특강 84~86면. (2010년 6월 모의고사 기출) / (나) 최인훈, ‘어디서 무엇이 되어 만나랴’ EBS 수능특강 249~251면. (2010년 9월 모의고사 기출)

37. [정답선택지해설]

② [연결논리] (가)를 보면, 화자는 독백적 어조를 통해 아내의 부채를 깨닫게 되는 순간의 슬픔(1-2행, 6-11행)과 무기력함(15-19행)의 정서를 표출하고 있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오답선택지해설]

① [연결논리] 과거 회상을 통한 과거 상황 제시는 확인할 수 없다.

② [연결논리] 아내를 잃기 전 화자의 일상적인 삶의 모습을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이 있으나(3-5행), 이것을 말을 건네는 방식을 통해 전달하고 있지는 않다.

④ [연결논리] 부정어의 반복이라고 볼 만한 것이 있기는 하지만(12행), 이것은 아내의 부채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화자의 인식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화자가 아내의 부채를 현실로 받아들이는 것과 연관이 있다(10-12행, 화자의 목소리에 대해 아내의 대답이 없는 것을 평소와 같이 아내가 옆구리 담피가 도져 누웠기 때문이 아닌 것으로 화자가 받아들이는 것)

⑤ [연결논리] 도지의 기법을 활용하여 비가 퍼붓는 상황에서 아내가 부채한 부정적 상황에 대한 화자의 무기력함이 드러나는데(18-19행), 화자의 정서를 표현하는 방식이 역설적이지는 않다.

38. [정답선택지해설]

④ [근거] (가) 10-15행 - 내 목소리만 내 귀에 들린다
이 사람이 어디 가서 잠시 누웠나
옆구리 담피가 다시 도졌나, 아니 아니
이번에는 그게 아닌가 보다
한 뼉 두 뼉 어둠을 적시며 비가 온다
혹시나 하고 나는 밝을 기웃거리다

[연결논리] <보기>를 바탕으로 근거를 이해하면, 예고 없이 찾아온 아내의 죽음으로 인해 화자는 일상의 균열을 경험하다가 결국 아내의 죽음을 현실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집 밖에 비가 내리자 ‘혹시라도 아내가 돌아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밝을 기웃거리던 것이 ㉔이므로(물론, 이 뒤에서 화자는 한치 앞을 볼 수 없을 정도로 퍼붓는 비 때문에 더 큰 절망과 무기력감을 느끼게 되지만), 신지의 진술은 적절

하지 않다.

[오답선택지해설]

① [연결논리] <보기>를 바탕으로 ㉔을 이해하면, 지금과 대비되는 불과 조금 전까지 아내가 있던 편안한 일상을 언급하며, 예고 없이 닥친 아내의 죽음으로 느끼게 된 낯선 심리를 강조한다고 볼 수 있다.

② [근거] (가) 3-6행 -
밤상은 차려놓고 어디로 갔나
넙치지지미 땀뻘한 땀새가
코를 땀뻘하게 하는데
어디로 갔나

③ [근거] (가) 1-6행 -
조금 전까지 거기 있었는데
어디로 갔나
밤상은 차려놓고 어디로 갔나
넙치지지미 땀뻘한 땀새가
코를 땀뻘하게 하는데
어디로 갔나

⑤ [근거] (가) 14-19행 -
한 뼉 두 뼉 어둠을 적시며 비가 온다
혹시나 하고 나는 밝을 기웃거리다
나는 풀이 죽는다
빗발은 한 치 앞을 못 보게 한다
웬지 느닷없이 그렇게 퍼붓는다
지금은 어쩔 수 없다고

[연결논리] <보기>를 바탕으로 근거를 이해하면, 갑자기 찾아온 아내의 죽음을 화자가 현실로 받아들이는 상황에 비가 내리자, 혹시나 아내가 돌아올까봐 화자는 밝을 기웃거리지만, 그 비가 느닷없이 퍼부어 화자가 한치 앞을 못 보게 하자, 아내의 죽음이라는 상황 속에서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화자의 무기력함과 아내의 죽음으로 인한 화자의 고독감이 고조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㉔에 대한 신지의 진술은 적절하다.

39. [정답선택지해설]

⑤ [근거] (가) 8-13행 -
내 목소리는 메아리가 되어
되돌아온다
내 목소리만 내 귀에 들린다
이 사람이 어디 가서 잠시 누웠나
옆구리 담피가 다시 도졌나, 아니 아니
이번에는 그게 아닌가 보다
+ (나) 116-125행 -
공주 그럴 리가……

대사 장군께서는 여기서 뵈게 전에 공주님을 알고 계셨습니다.

공주 나를 보셨다는 말인가요?

대사 장군께서 그 전날 산에서 주무셨다면 생각이 나십니까?

공주 나고말고요, 그래서 그날 절수를 메고 들어오시지 않았습니까? 송아지만한 꿈을 (꿈꾸듯)

대사 맞습니다. 장군이 그날 밤, 산에서 꿈을 꾸셨다더군요.

공주 꿈을? / 대사 네

공주 그래서? / 대사 꿈에서 공주님을 뵈었다더군요.

공주 처음 듣는군요. 자세히 얘기해 주세요.

대사 그래서 공주님을 보았을 때 대뜸 알아보았다고 하더군요.

[연결논리] 근거에 따르면, (가)에서 화자가 아무리 아내를 불러봐도 돌아오는 것은 화자의 목소리인 메아리뿐이었고, 이를 통해 화자는 아내의 부재라는 화자의 현재 처지를 깨닫게 된다. 한편, (나)에서 온달이 공주를 만나기 전에 꿈 속에서 온달이 공주를 만났다는 것을 대사가 말하는 것에서, 꿈은 공주와

온달과의 과거 인연이 특별한 것임을 부각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오답선택지해설】

① [연결논리] (가)의 메아리와 (나)의 꿈 모두 무관하다.

② [연결논리] ①의 [연결논리]와 동일

③ [연결논리] (가)의 메아리는 화자가 아내의 죽음을 현실로 받아들이게 한다는 점에서 화자의 기대를 드러내는 것과는 상반되고, (나)의 꿈의 내용을 대사로부터 들은 공주는 그 꿈에 대해 관심을 보인다는 점에서 공주의 실망감과는 상반된다.

④ [연결논리] (가)의 메아리는 아내의 부제를 화자가 실감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상실감을 유발하는 것과 관련이 있을지 몰라도, (나)의 꿈이 공주에게 기쁨을 유발하지는 않는다(꿈 내용에 관심을 갖는다는 것과 기쁨을 느끼는 것은 다른 것이고, (나)에는 공주가 꿈 때문에 기쁨을 느끼고 있는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

40. [정답선택지해설]

③ [근거] (나) 45-65행 -

공주 어머님께 장군이 돌아가신 이야기를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대사 그것이 어렵군요.

공주 나의 참마음 같아서는 영영 말씀드리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모시고 있으면서 언제까지나 말씀드리지 않을 수도 없고

대사 방법은 있습니다.

공주 무슨?

대사 공주께서 제 암자에 거처하시면서 가끔 여기와 머무르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공주 저는 옛날처럼, 장군이 계시던 시절처럼 어머니를 모시려고 온 것입니다. 그리고 한두 번이지, 번번이 저 혼자만 나타나면 어찌 생각하시겠습니까?

대사 그러니.....

공주 아무튼 나는 인제 돌아갈 곳은 없는 몸이니, 양단간에 정하기는 해야 하겠는데.....

대사 얼마동안은 괜찮으리다. 장군께서 싸움터에 계시는 동안 다니러 오셨다고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공주 싸움터에..... (슬픈 웃음)

대사 장군께서도 공주님이 노부인과 사시기로 한 일을 잘했다고 하실 것입니다.

공주 (끄덕인다) 저한테 당부하시던걸요.

[연결논리] 근거에 따르면, 공주는 온달장군의 집에서 머무른다면 언젠가는 온달장군의 어머니에게 온달장군의 죽음을 말해야 할 순간이 올 것이라 생각하여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를 들은 대사가 '온달장군이 싸움터에 있어 돌아오지 못한다.'라는 식으로 온달장군의 어머니에게 둘러대라고 공주에게 권유하자, (다소 선명하게 나오지는 않지만) 공주가 그것을 받아들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선지의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선택지해설】

① [근거] (나) 45-49행 -

공주 어머님께 장군이 돌아가신 이야기를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대사 그것이 어렵군요.

공주 나의 참마음 같아서는 영영 말씀드리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모시고 있으면서 언제까지나 말씀드리지 않을 수도 없고

② [근거] (나) 28-39행 -

공주 나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장군의 명예를 위해서.

장군이 돌아가시자 손바닥 뒤집듯 돌아서는 것들이 미워서

대사 모든 일은 끝났습니다.

공주 그런데 나는 끝난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아요.

대사 내?

공주 장군께서 꼭 돌아오실 것만 같아요. 집에서는 꼬박 밤을 새웠어요.

대사 한 달밖에 안됐으니 그러시겠지요.

공주 한 달? 어제 같아요. 이렇게 와 보니, 여기서 살던 세월이 어제 같아요. 십년 전에 이 마당에 들어서던 일이 어제 같아요. 대사님, 마음은 왜 움직이지 않습니까? 어지러운 바람이 몰아쳐 갔는데 왜 마음은 꼭 어제 같습니까?

④ [근거] (나) 63-69행 -

대사 장군께서도 공주님이 노부인과 사시기로 한 일을 잘했다고 하실 것입니다.

공주 (끄덕인다) 저한테 당부하시던걸요.

대사 평소에 걱정을 하셨겠지요. 어머님을 모시지 못하셨으니

공주 어머님께서 평양에 오시기를 한사코 마다하셨지요. 나이 많으신 분이 갑자기 생소한 곳에서 부대끼실 것도 그렇고 여기 계시게 한 것입니다.

⑤ [근거] (나) 71-79행 -

대사 왕자는 늘 온달장군에게 호의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공주 그래서 내 남편을 죽이도록 놓아두었습니까?

(격한 투로, 점점 흥분하면서) 그 사람의 미지근한 태도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사태를 그릇 판단했는지. 나는 왕자가 가장 나쁜 비극은 피하도록 힘을 쓰는 줄로 알았지요. 내가 그 사람을 믿지 말고 내손

에 힘이 있었을 때 화근을 뿌리째 뽑아야 하는 것을. 혐도, 용기도, 지혜도 없는 사람을, 허깨비 같은 사람을

어렴풋이 믿고 있다가 하늘같은 남편을 잃을 줄이야. 반역자들은 처단하라는 내 호소를, 그 사람은, 중시 믿어 주지 않더군요.

41. [정답선택지해설]

② [근거] ㄱ. (나) 112-125행 -

대사 그 말씀을 제가 드리려는 겁니다.

공주 그 말이러니

대사 장군께서는 놀라지 않으셨을 거라는 말씀이지요.

공주 그럴 리가.....

대사 장군께서는 여기서 뵈게 전에 공주님을 알고 계셨습니다.

공주 나를 보셨다는 말인가요?

대사 장군께서 그 전날 산에서 주무셨다면 생각이 나십니까?

공주 나고말고요. 그래서 그날 짐승을 메고 들어오시지 않았습니까? 송아지만한 꿈을 (꿈꾸듯)

대사 맞습니다. 장군이 그날 밤, 산에서 꿈을 꾸셨더군요.

공주 꿈을? / 대사 네

공주 그래서? / 대사 꿈에서 공주님을 뵈었다더군요.

공주 처음 듣는군요. 자세히 얘기해 주세요.

대사 그래서 공주님을 보았을 때 대뜸 알아보았다고 하더군요.

ㄴ. (나) 45-65행 -

공주 어머님께 장군이 돌아가신 이야기를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대사 그것이 어렵군요.

공주 나의 참마음 같아서는 영영 말씀드리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모시고 있으면서 언제까지나 말씀드리지 않을 수도 없고

대사 방법은 있습니다.

공주 무슨?

대사 공주께서 제 암자에 거처하시면서 가끔 여기와 머무르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공주 저는 옛날처럼, 장군이 계시던 시절처럼 어머님

을 모시려고 온 것입니다. 그리고 한두 번이지, 번번이 저 혼자만 나타나면 어찌 생각하시겠습니까?

대사 그러니.....

공주 아무튼 나는 인제 돌아갈 곳은 없는 몸이니, 양단간에 정하기는 해야 하겠는데.....

대사 얼마동안은 괜찮으리다. 장군께서 싸움터에 계시는 동안 다니러 오셨다고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공주 싸움터에..... (슬픈 웃음)

대사 장군께서도 공주님이 노부인과 사시기로 한 일을 잘했다고 하실 것입니다.

공주 (끄덕인다) 저한테 당부하시던걸요.

ㄴ. (나) 1-29행 -

공주 (격하게, 팔각적으로 격해지는가하면 갑자기 풀이 죽고 하는 식으로) 나는 모르겠어요. 지금도 모르겠어요. 그날 장군을 뵈으면서, 아니 이 집이라는 말을 들은 그 찰나에 내 머릿속의 무엇인가가 어긋나 버렸어요. 무엇일까요?

대사 집착을 버리십시오.

공주 집착? 아니에요. 그것은 내 것이 아니니까. 집착할 수도 없지 않아요? 생사와 꿈이 어긋난 것일까?

무엇이 내 안팎에서 틀려버린 것일까? 그때 이 마당에서 내가 느끼던 그 짜증스러움, 내가 살아오던 세월이 뱃멀미처럼 곤두서면서 나는 평양성의 시간을 토해버렸어요. 그 뒤에 남은 어절머리를, 어절머리를

달래느라구나 나는 발버둥쳤지요. 정신을 수습하려는, 뱃손님처럼. 그런데도 지금도 (이마에 손을 얹는다) 나는 어지러워요. 이 마당. 저 울타리. 저 산봉우리들.

초겨울의 이 무렵. 내가 살던 집이에요. 그 세월이 흘렀는데 왜 이토록 아무 일도 없을까요. 그것이 이상스러워요.

대사 공주님, 우리가 없어도 강산은 있고, 우리가 없어도 세월은 있습니다.

공주 용서할 수 없어요. 나는 그것을 용서할 수 없어요. 좋아요. 그러나 세월과 내가 함께 있는 동안만은 나는 이 어절머리에서 풀려나고 싶어요.

대사 그래서 노부인과 사시러 여기 오신 게 아닙니까?

공주 (갑자기 누그러지며) 그래요.

대사 그리고 공주님께서는 궁에 계시서는 안 됩니다.

공주 무슨 낙이 있다고 내가 거기 있기를 원하겠어요. 그러나 나를 죽지 부린단 세라고 업수가 여기는 것이 캐임해서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 것뿐입니다.

대사 그런 생각을 버리십시오.

공주 나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장군의 명예를 위해서. 장군이 돌아가시자 손바닥 뒤집듯 돌아서는 것들이 미워서

[연결논리] 근거에 따르면, (나)에서 대사는 공주가 몰랐던 온달장군의 일화(온달장군이 공주를 만나기 전에 공주와 만난 꿈을 꾸었다는 것)를 전달하여 공주를 위로하고 있고(ㄱ), 공주가 온달장군의 집에 머물면 온달장군의 어머니가 온달장군의 생사를 물어볼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고민하는 공주에게 온달장군이 싸움터에 있다는 식으로 둘러대라며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으며(ㄴ), 온달장군이 죽은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며 온달장군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하는 공주의 태도가 현재 공주가 처한 어려운 상황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음을 지적하며 공주에게 집착을 버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ㄴ).

【오답선택지해설】

ㄴ. [근거] (나) 71-88행 -

대사 왕자는 늘 온달장군에게 호의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공주 그래서 내 남편을 죽이도록 놓아두었습니까?

(격한 투로, 점점 흥분하면서) 그 사람의 미지근한 태도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사태를 그릇 판단했는지. 나는 왕자가 가장 나쁜 비극은 피하도록 힘을

쓰는 줄로 알았지요. 내가 그 사람을 믿지 말고 내손에 힘이 있었을 때 화근을 뿌리چه 뽑아야 하는 것을. 힘도, 용기도, 지혜도 없는 사람을, 허깨비 같은 사람을 어렵듯이 믿고 있다가 하늘같은 남편을 잃을 줄이야. 반영자들은 처단하라는 내 호소를, 그 사람은, 잠시 믿어 주지 않더군요.

대사 어전 회의에서 말이지요?

공주 (끄덕임)

대사 무어라 하시던가요?

공주 무슨 말이라도 한다면 시원하지 않겠어요?

대사

공주 아무것도 없는 빈 얼굴, 빈 마음, 그래도, 임금의 자리는 마다 닳을 테지요?

대사 공주께서 무사히 여기 오시게 애쓰신 것도 왕자님이십니다.

【연결논리】 근거에 따르면, (나)에서 온달장군을 살리지 못한 왕자에 대해 분노를 표출하는 공주에게 대사는 왕자가 공주를 구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만 언급했지, 정치적 상황의 불가피함을 내세워 공주에 대한 왕자의 처분을 정당화하고 있는 부분은 확인할 수 없다.

인. [근거] (나) 21-26행 -

대사 그래서 노부인과 사시러 여기 오신 게 아닙니까?

공주 (갑자기 누그러지며) 그래요.

대사 그리고 공주님께서 공에 계셔서는 안 됩니다.

공주 무슨 낙이 있다고 내가 거기 있기를 원하겠어요. 대사 그래서 노부인과 사시러 여기 오신 게 아닙니까?

공주 (갑자기 누그러지며) 그래요.

대사 그리고 공주님께서 공에 계셔서는 안 됩니다.

공주 무슨 낙이 있다고 내가 거기 있기를 원하겠어요. 그러나 나를 죽지 부러진 새라고 업수가 여기는 것이 캐썸해서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 것뿐입니다.

【연결논리】 근거에 따르면, (나)에서 대사는 공주가 궁이 있는 평양성으로 가면 안된다고 하였으나, 이미 공주는 온달장군의 집에서 살기로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대사가 공주가 거처에 대한 결단을 촉구한다고 보기 어렵다.

42. [정답선택지해설]

④ [근거] (나) 24-29행 -

공주 무슨 낙이 있다고 내가 거기 있기를 원하겠어요. 그러나 나를 죽지 부러진 새라고 업수가 여기는 것이 캐썸해서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 것뿐입니다.

대사 그런 생각을 버리십시오.

공주 나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장군의 명예를 위해서. 장군이 돌아가시자 손바닥 뒤집듯 돌아서는 것들이 미워서

【연결논리】 <보기>를 참고하여 근거를 이해하면, 온달장군이 죽고 난 후 별 불일 없는 취급을 받는 자신(공주)의 모습을 ‘새의 죽지가 부러져 날지 못하게 된 변화’라는 자연적 이미지에서 따온 ‘죽지 부러진 새’라고 지칭하는 것으로 보아, 이 이미지는 온달장군의 죽음 이후 비루해진 공주의 현재 처지를 암시한다고 이해할 수는 있으나, 온달장군의 죽음을 암시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오답선택지해설】

① [연결논리] <보기>를 참고하여 ㉠을 이해하면, 밥상은 아내를 환기하는 대상인 비유적 이미지로, 밥상을 차리는 아내가 사라진 ㉡은 아내의 죽음을 암시한다고 볼 수 있다.

② [연결논리] <보기>를 참고하여 ㉤을 이해하면, 원형적 이미지에 비와 어둠이 조음하여 어두운 분위기를 형상화한 ㉥은 사라진 아내의 죽음을 환기한다고 볼 수 있다.

③ [연결논리] <보기>를 참고하여 ㉢을 이해하면, 한 치 앞을 못 볼 정도로 세차게 내리는 빗발은 음울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원형적 이미지로, 아내의 부채 상황 속에서 화자의 무기력함을 고조시킨다고 볼 수 있다.

⑤ [연결논리] <보기>를 참고하여 ㉢을 이해하면, 원형적 이미지에 어지러움이라는 속성을 부여한 ㉢을 통해 공주가 온달 장군의 죽음을 부정적으로 여기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43 ~ 45] (교전시가) 박인로, ‘누항사’ EBS 수능특강 115~117면. (2008년 6월, 2012년 9월 기출)

43. [정답선택지해설]

② [근거] 17-33행 -

긴 수염 늙은 종은 노주분(奴主分) 잊었는데
고여춘급(告余春及)을 어느 사이 생각하리
경당문노(耕當問奴)인들 누구에게 물을런고
손수 농사 짓기 내 분(分)인 줄 알리랴
신야경수(莘野耕叟)와 농상경옹(壘上耕翁)을 천다 할
이 없건마는

아무리 갈고자 한들 어느 소로 갈겠는가
북창(北窓)에 기대 앉아 새벽을 기다리니
무정한 오디새는 이 내 한을 뉘누는구나
아침까지 울적하여 먼 들을 바라보니
즐기는 농가(農歌)도 흥 없이 들린다
세상 물정 모르는 한숨은 그칠 줄을 모른다
아까운 저 쟁기는 뱃보임도 좋을시고
가시 영킨 묵은 밭도 용의(용이)께 갈런만은
텅 빈 집 벽에 쓸 데 없이 걸렸구나
춘경(春耕)도 거의로다 후리 처 던져두자

【연결논리】 근거에 따르면, [B]에서 화자의 종이 노주분을 잊고 봄을 알리지 않은 것은 맞지만, 그것 때문에 때를 놓쳐 농사를 마친 것이 아니라, 화자는 논밭을 갈기 위해 쟁기를 끌어 줄 소를 빌리지 못했기 때문에 농사를 망쳐 [E]의 ‘논밭을 다 묵혀 던져두는’ 상황에 이른 것이므로, 선지의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선택지해설】

① [근거] 1-7행 -

누항(陋巷) 깊은 곳에 초막(草幕)을 지어 두고
종조우석(鳳朝雨夕)에 썩은 짚을 섶으로 삼아
서 흙 밭 닦 흙 죽(粥)에 연기(煙氣)도 하도할사
설대인 능승으로 빈 배 속일 뿐이로다
생애(生涯) 이러한들 장부(丈夫) 뜻을 옮길런가
안빈일념(安貧一念)을 적을망정 품고 있어
뜻대로 살려 하니 갈수록 어긋난다

+ 34-35행 -

강호(江湖) 한 꿈을 곧 지도 오래려니
입과 배가 누가 되어 어즈버 있었도다

③ [근거] 21-32행 -

신야경수(莘野耕叟)와 농상경옹(壘上耕翁)을 천다 할
이 없건마는

아무리 갈고자 한들 어느 소로 갈겠는가
북창(北窓)에 기대 앉아 새벽을 기다리니
무정한 오디새는 이 내 한을 뉘누는구나
아침까지 울적하여 먼 들을 바라보니
즐기는 농가(農歌)도 흥 없이 들린다
세상 물정 모르는 한숨은 그칠 줄을 모른다
아까운 저 쟁기는 뱃보임도 좋을시고
가시 영킨 묵은 밭도 용의(용이)께 갈런만은
텅 빈 집 벽에 쓸 데 없이 걸렸구나
④ [근거] 33-39행 -

춘경(春耕)도 거의로다 후리 처 던져두자
강호(江湖) 한 꿈을 곧 지도 오래려니
입과 배가 누가 되어 어즈버 있었도다

저 물가 바라보니 녹죽(綠竹)도 하도할사
유비군자(有斐君子)들아 닦대 하나 빌려스라
노화(蘆花) 깊은 곳에 명월청풍(明月淸風) 벗이 되어
임자 없는 풍월강산(風月江山)에 절로절로 늠으리라
+ 43-51행 -

두세 이랑 논밭을 다 묵혀 던져두고

있으면 죽(粥)이요 없으면 굶을망정

남의 집 남의 것은 전혀 부러워 말겠노라

내 빈천(貧賤) 싫게 여겨 손을 저어 몰려 가며

남의 부귀(富貴) 부럽게 여겨 손을 친다고 나아오라

인간(人間) 어느 일이 명(命) 밖에 생겼으리

빈이무원(貧而無怨)을 어렵다 하건마는

내 생애(生涯) 이러하되 설운 뜻은 없노매라

평생(平生) 한 뜻이 온포(溫飽)에는 없노매라

⑤ [근거] 5-11행 -

생애(生涯) 이러한들 장부(丈夫) 뜻을 옮길런가

안빈일념(安貧一念)을 적을망정 품고 있어

뜻대로 살려 하니 갈수록 어긋난다

가을이 부족(不足)한데 봄이라 유여(有餘)하며

주머니 비었거든 병(瓶)이라고 담겼으랴

빈곤(貧困)한 인생(人生)이 천지간(天地間)에 나뿐이라

베고픔과 추위로 괴로워도 일단심(一丹心)을 잊을런가
+ 43-54행 -

두세 이랑 논밭을 다 묵혀 던져두고

있으면 죽(粥)이요 없으면 굶을망정

남의 집 남의 것은 전혀 부러워 말겠노라

내 빈천(貧賤) 싫게 여겨 손을 저어 몰려 가며

남의 부귀(富貴) 부럽게 여겨 손을 친다고 나아오라

인간(人間) 어느 일이 명(命) 밖에 생겼으리

빈이무원(貧而無怨)을 어렵다 하건마는

내 생애(生涯) 이러하되 설운 뜻은 없노매라

평생(平生) 한 뜻이 온포(溫飽)에는 없노매라

태평천하(太平天下)에 충효(忠孝)를 일을 삼아

화형제(和兄弟) 신봉우(信朋友) 그르다 할 이 뉘이
시리
그 밖의 남은 일야가 생긴 대로 살렷노라.

44. [정답선택지해설]

① [연결논리] 위 글을 보면, 화자는 누항에서 베고
픔과 추위에 시달리며([A]) 농사를 짓고 싶으나 농
사를 짓기 위한 소를 빌리지 못해 농사를 포기해야
하는([B]~[C]) 곤궁한 현실 상황에 대한 인식을 하
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현실 속에서 화자가 지
향하는 유교적 가치를 지키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며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D]~[E])

【오답선택지해설】

② [연결논리] 26행의 ‘오디새’ 때문에 이 선지를 고
민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오디새’는 화자가 처한 부
정적 상황(농사에 필요한 소를 빌리지 못함)에서 화
자의 비애를 고조하는 객관적 상관물이지, 화자의 감
정이 이입된 대상이 아니다.

③ [연결논리] 위 글에서는 유사한 구조를 가진 시구
가 반복되고 화자가 처한 부정적 상황이 드러나기는
하지만, 화자는 그 상황 속에서도 자신이 지향하는
유교적 가치를 지키겠다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으며,
로, 선지의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④ [연결논리] 말을 건네는 방식은 사용되지 않았으
며, 대상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가 드러나는 부분 또
한 확인할 수 없다.

⑤ [연결논리] 위 글에서 설의적 표현이 자주 사용되
기는 하지만, 이러한 표현을 통해 화자가 자신의 궁
핍한 생활을 벗어나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내지는 않
았다.

45. [정답선택지해설]

③ [근거] 20-32행 -

손수 농사 짓기 내 분(分)인 줄 알리로다
 신야경수(莘野耕叟)와 농상경옹(龜上耕翁)을 천타 할
 이 없건마는
 아무리 갈고자 한들 어느 소로 갈겠는가
 북창(北窓)에 기대 앉아 새벽을 기다리니
 무정한 오디새는 이 내 한을 돋우는구나
 아침까지 울적하여 먼 들을 바라보니
 즐기는 농가(農歌)도 흥 없이 들린다
 세상 물정 모르는 한숨은 그칠 줄을 모른다
 아까운 저 쟁기는 벼보임도 좋을시고
 가시 영린 묵은 밭도 容易(용이)케 갈련만은
 텅 빈 집 벽에 쓸 데 없이 걸렸구나

[연결논리] <보기>를 참고하여 근거를 이해
 하면, 화자가 즐기는 농가를 듣고도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데, 그 이유는 농사를 짓기 위해 이웃에게 소
 를 빌리러 갔으나 (이 설명이 없어도 문제는 풀리지
 만, 화자가 소를 빌리지 못한 이유는 세상 물정을 모
 르는 화자는 소를 빌리러 빈손으로 이웃에게 찾아갔
 는데, 세상 물정을 아는 한 사람이 쟁고기와 술을 가
 지고 이웃을 찾아가 소를 빌려갔기 때문이다. 이 작
 품은 평가원 기출도 되었고, 연계교제에서 자주 다루
 는 작품이므로, 이정도 학습은 되어 있어야 한다.) 소
 를 빌리지 못해 농사를 지을 수 없기 때문이지, 농사
 로 대기근을 극복할 수 없는 현실 때문이 아니다.

[오답선택지해설]

① [근거] 1-4행 -

누항(陋巷) 깊은 곳에 초막(草幕)을 지어 두고
 풍조우석(風朝雨夕)에 썩은 짚을 섶으로 삼아
 서 흙 밥 닛 흙 죽(粥)에 연기(煙氣)도 하도할샤
 설태인 승냥으로 빈 배 속일 뿐이로다

② [근거] 12-15행 -

본의방신(奮義忘身)하여 죽어야 말나 여겨
 자루와 주머니에 줌뭉이 모아 넣고
 전란 오 년에 감사심(敢死心)을 가져 이서
 주검 밟고 피를 건너 몇 백 전(戰)을 지냈던고

④ [근거] 34-41행 -

강호(江湖) 한 꿈을 꾸 지도 오래려니
 입과 배가 누가 되어 어즈버 잊었도다
 저 물가 바라보니 녹색(綠竹)도 하도할샤
 유비군자(有斐君子)들이 님대 하나 빌려스라
 노화(蘆花) 깊은 곳에 명월청풍(明月淸風) 벗이 되어
 임자 없는 풍월강산(風月江山)에 절로절로 늙으리라
 무심한 백구(白鷗)야 오라 하며 말라 하라
 다들 이 없는 건 다만 이건가 여기노라

⑤ [근거] 위 글의 [E]

[연결논리] <보기>를 참고하여 근거를 이해하면,
 전란과 대기근으로 피폐해진 현실 속에서 화자도 궁
 께한 처지에 빠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자는
 이에 굴하지 않고 사족으로서 지켜야 할 유교 윤리를
 지키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고, 이것은 사족 계층
 인 화자가 혼란스러운 현실 사화를 안정시키고자하는
 의식을 드러낸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선지의 진
 술은 적절하다.

<7월 그믐달 모의고사 출간 안내>

‘깔끔함, 신유형100%반영, EBS 100%연계’
 그믐달 모의고사가 7월에 3회분으로 출시됩니다.

(이후 9월 추가 3회분 출시 예정)
 수능 평가원 모의고사를 제외하고서는
 가장 평가원스러운 모의고사를 지향합니다.
 많은 기대해주세요. 향후 공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6월 그믐달 모의고사 해설 강의 듣는 법>

‘ETOOS 그믐달 강좌페이지 - 6월 직전 그믐달모의고사
 해설 강의’

무료로 해당 모의고사 문제들을 쉽고, 빠르게 푸는 일관
 된 독해 원칙을 훈련시켜 드립니다.

혼자 공부했을 때, 효과가 떨어지니, 반드시 수강하시길
 바랍니다.(모의고사, 강좌비용 무료)